



[뉴스] 흔들리는 자영업 건대역 가보니 소규모 자영업은 죽을 맛 02



Economy

코스피	2301.45 (+1.29)	코스닥	783.81 (-0.89)
금리 (2년 기준)	2.07 (-0.01)	환율 (1달러)	1119.90 (-3.90) (8일)

삼성의 통큰 결단

AI·5G·바이오·전장에 180조 투자... 4만명 채용

(3년 간)

삼성전자

4대 미래성장산업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 기여

국내에만 130조원 투입 직간접 70만명 고용효과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이 담긴 180조대 투자계획을 8일 발표했다. 투자분야는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와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하며, 직접 채용 4만명을 포함해 약 70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발생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신규 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신규 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

삼성전자는 이번 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은 향후 3년 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에 연평균 43조원에 달하는 총 1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에 이어 AI,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의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평택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

정이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사의 대량 물량 공세에 대응해 고부가·차별화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추가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AI, 5G, 바이오사업 등에 약 25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용 분야에서 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원래 채용은 3년 간 2만~2만5000명 수준인데 여기에 최대 2만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근무환경도 개선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삼성전자 투자·고용·상생협력 계획 주요 내용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

- 3년간 180조원 투자
 - 반도체 : 인공지능(AI, 5G, 데이터센터, 전장 등)의 신규 수요 대응 평택캠퍼스 등 국내 생산 거점 중심 투자
 - 디스플레이 : 고부가·차별화 제품 투자 확대
 - 4차 산업혁명 중심(AI, 5G, 바이오)분야에 25조원 투자
- 3년간 4만명 직접 채용
 - 기존 계획의 2만~2만5천명에서 대폭 확대
 -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노력
 - 국내 투자 130조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70만명 추산
- 4대 미래 성장사업 육성
 - AI·5G·바이오 : 전장부품을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
 - 한국 AI센터 허브로 글로벌 연구 거점에 1천명 인력 확보
 - 5G 칩셋·단말·장비 등에 투자
 - 바이오시밀러(제약), CMO사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집중 투자로 바이오 분야 제2의 반도체 사업 육성
 -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SoC) 등 미래 자동차 전장 부품 기술 선도
- 기초과학 투자
 - 4차 산업혁명 핵심인 AI, 5G, IoT, 바이오 등 분야로 미래 기술육성사업 확대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조5천억원 지원

자료/삼성전자

고 밝혔다.

삼성측은 이런 국내 130조원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만 명과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 명 등 약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삶의 질 향상을 핵심 테마로 잡았다.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한 AI·5G·바이오·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AI센터 허브로 글

혁신역량 및 노하우 개발·공유

- 5년간 청년 1만명 소프트웨어 교육
 -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전국 4~5곳에 교육장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생에 일정한 지원
 - 성적우수자에 삼성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직접 채용 검토
- 스타트업 지원
 - 5년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 확대.200개 과제 사업화 지원
 - 사회 벤처 지원프로그램 'C랩 아웃시드' 운영, 5년간 3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현재 연간 400억원 수준인 산학협력 규모 1천억원으로 확대
- 상생협력 확대
 - 스마트팩토리 지원
 - 향후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1천100억원 기금 조성, 2,500개 스마트공장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 비밀해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방·노후 산업단지 소재 기업 및 장애인·여성 고용기업 우선 지원
 - 특허 개방, 우수기술 설명회, 구매 전시회, 온라인 소싱몰 입점 등 지원
 -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확대
 - 7천억원 규모의 3차 협력사 전용 펀드(상생펀드 및 물대지펀드) 추가 조성
 - 우수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 인센티브 규모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연립뉴스

로벌 연구 거점으로 삼아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계기로 칩셋·단말·장비 등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5G 인프라는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만큼 핵심역량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삼성은 바이오시밀러(제약), CMO사업(의약품 위탁생산) 등에도 집중 투자해 바이오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고품위화 및 안정성 확보 등 경쟁력 확보에 중요 분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은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 1만명, 5년 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스마트 팩토리 2500개 지원,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총 4조 원으로 확대 등 종합적인 교육과 상생 지원 계획도 내놓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은 관계사 이사회 보고를 거친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화재 진압복 입을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폭염 속 근무 환경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상가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련법 적용 확대 권고에 소상공인들 강력 반발

131만개가 훌쩍 넘는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여부가 하반기 주요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적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댈 경우 불법이 판을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중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더욱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살바싸움이 치열할 것임을 예상해 한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광장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결정안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협상안 재논의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말 활동을 끝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명까지만 자

영업자나 소기업 등은 법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준수, 노동권 침해, 직장 갑질 등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노동계가 법 적용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권고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31만3892개로 전체(188만2923개)의 6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월급은 5인 미만 이 138만원으로 5~9인(184만원)보다 낮았고, 10인 이상(279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율은 5인 미만이 35.1%(2016년)로 전체 평균(69.6%)을 크게 밑돌았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2018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북방경협 바람 타고 동북아 물류 새 시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1층)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본격화하면 두 나라의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도 연결돼 유럽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철도를 비롯한 물류 인프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러기업협회 등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09~12시(오찬 제공)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 1층)
- 주 최 : 메트로경제
- 문 의 : (02) 721-9826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참가신청 :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또는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metro

“초역세권도 프랜차이즈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흔들리는 자영업 서울 주요 상권 가보니

④ 건대역

대학교·역세권 바탕 로드상권
평일·주말 유동인구 많지만
百·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붐벼
광진구 상권 3년 이상 생존율 37%



“개점 첫 달 매출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40만원으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가게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최저임금까지 오르고 있어 아르바이트생 월급조차 주기 힘들어요.”

8일 건대입구 역 인근 ‘롯데오거리’에서 만난 자영업자 A(49)씨의 하소연이다. 지난 6월 도너 가게를 개업한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건대입구 역 인근 상점가의 월 평균 임대료가 200만~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경우 임대료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매출에 영향, 프랜차이즈 아니면 자영업 힘들어

직장인들의 근무체계가 주 52시간으로 변경된 것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

든 이유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롯데오거리에서 12년째 토스트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B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근무체제가 시행되다 보니 퇴근하면서 찾아오는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며 “대학생 손님도 별로 없다”고 전했다.

B씨는 본래 아르바이트로 직원을 고용했지만 매출이 급감하면서 현재는 직원을 두지 않고 부인과 단 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 역 6번 출구 인근 ‘롯데오거리’는 CGV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었지만 ‘롯데오거리’라는 이름과 달리 의류 매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C씨는 “근처에



대학상권이 형성된 ‘건대 맞의 거리’(왼쪽사진)와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는 호프집과 피부관리샵.

/정연우 기자

있는 롯데백화점에 대부분의 고급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어 최근에는 음식점이나 주점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양시장 방향으로 들어서자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건대입구의 숨은 명소라 불리는 ‘양꼬치 거리’다. 음식점 외에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과 환전소들이 많았다. 본래 이곳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성수동 일대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들이 값이 저렴한 월세방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난 2007년 중국인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다.

◆역세권에서 멀어질 수록 나타나는 폐업 상점들

건대입구 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다. 일명 ‘건대 맞의 거리’로도 불리는 이 곳은 상

권이 잘 형성돼 있는 편이었다. 치킨호프, 퓨전 주점, 노래방, 맥주 전문점, 고깃집 등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비어있는 의류매장 한 곳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 한 복판에서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주인이 가게를 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깨끗한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화양시장을 지나서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서자 상가 1층에 비어있는 가게 두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겨있는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을 살펴보니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주변 상인에 따르면 맥주집의 경우 폐업한 지 한 달이 지났으며 피부 관리샵은 1년이 되었다고 전한다. 역세권에서 멀어질 수록 가게 유지가 힘들어 점주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분위기다. 먹자골목 상점가

의 경우 10평 기준으로 보증금은 2000만~5000만원, 권리금 1억~1억5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이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건대입구 상권이 속한 광진구의 경우 폐업률이 1.952%였으며 3년 이상 생존율은 37%였다.

건대입구 일대는 서울 10대 상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지하철 환승 역세권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로드 상권이 펼쳐져 있다.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상업 시설이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기만 하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대입구는 대학상권이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유동인구는 많은 편이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일찌감치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1면 ‘5인 미만 사업장...’서 계속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등 감당못해 ‘범법자로 전락’ 우려

5인 미만은 유급휴가 41.8%(평균 69.9%), 퇴직금 15%(“ 47.3%), 근로계약서 33.8%(“ 61.4%), 노조가입률 0.9%(“ 11.9%) 등에서 모두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전반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모습이다.

하지만 주로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 격으로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오르는데, 법대로 임금을 더 주려면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이 50%를 수당의 시간으로 지급 ▲토·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 ▲22~06시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월급이 246만 정도인 노동자에게는 시간의 수당(1일 2시간, 월 65시간 근무 가정), 휴일 수당(월 65시간 근무 가정)을 더해 총 283만원을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 하루 8시간씩 야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급 283만원 외에 87만원의 야간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한 관계자는 “여당과 일부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동의하고 나섰지만 최저임금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체까지 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마포에 ‘청년창업타운’ 조성... 300개 기업에 원스톱 지원

금융위

20층·1만여평... 국내 최대 규모
최장 3년간 금융·컨설팅 등 도와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 공간이 서울시 마포구에 조성된다. 이에 따라 창업 7년 이내의 300개 기업이 금융과 컨설팅, 해외진출 등 분야에 대해 정부의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세부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

표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300개 청년 기업에 최장 3년간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 진출 등 전 분야를 패키지 지원한다.

이 시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청년혁신타운에 조성된다. 20층 건물의 연면적은 1만980평으로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프랑스)’와 동일한 수준이자 국내 최대 규모다.

정부는 혁신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가 있으나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 보육공

간 마련한다.

또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고자 신촌(대학)-마포(창업공간)-여의도(금융사)간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아울러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창업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간에서 300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전 분야를 패키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민간운영사 자체

선발, 데모데이를 통한 개방형·경쟁 선발 등 입주기업 선정 경로는 다양하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우대상품 지원에 강점이 있다.

또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성장(Scale-up) 단계별로 투자와 대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10조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도 입주기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혁신타운 공간 구성을 확정하고 내년 4분기 중에 건물을 개방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개방 시점은 2020년 5월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또 불발... 차기 회의서 논의

6차 지정심의위, 결론 못 내리 안정성 기준 적합여부 재검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약품’(이하 상비약) 품목 조정이 6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산제와 지사제 판매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으나,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정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기로 했다.



강윤구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편의점 상비약 관련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휘

스탈 등 13개 품목을 상비약품으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당초 제산제로는 겔포스, 지사제로는

스펙타가 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품목 지정 외에, 약사회가 요구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500mg’ 상비약 품목 제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이 간 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빠른 시일 내로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500mg 제외, 편의점 판매 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서기자 min0812@

보복 없다더니... 압박하는 금감원, 버티는 삼성생명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구제' 거부

금감원, 미지급액 규모 정확히 파악
법규 위반 여부 따라 제재 조치 검토
업계, 보험 3사서 4천억 토해낸
'자살보험금' 사태 수순 밟을 것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일괄구제' 방침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이 심의위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종합검사 실시 등 고강도의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윤석현 금감원장이 '보복은 없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자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금융당국이 기관·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할 경우 삼성생명도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후 정례감사에서 삼성생명의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일괄구제' 권

고에 대해 거부하자 보복성 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분' 있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현 원장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와는 다른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된 4300억원의 10분의 1 이하인 370억원으로, 계약 당사자 5만 5000명에게 각각 약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일괄구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도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6년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를 이유로 지급 책임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음에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대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카드로 보험사들을 압박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보험 3사는 결국 4000억원을 토해냈다.

일각에서는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원칙을 어긴 금융사만을 정해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이슈는 자살보험금 사태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 생보사들도 버티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2위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은 오는 13일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구제 가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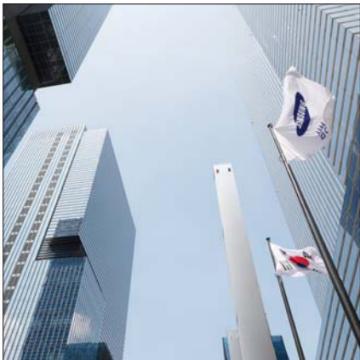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취준생 1만명에 '교육기회' 3차 협력사에 7000억 펀드

삼성의 톡큰 투자



교육장 4~5곳서 소프트웨어 교육
5년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 전자 사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투자와 고용 계획 외에 교육지원과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청년 취업 준비생 1만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포함한 전국 4~5곳에 교육장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해는 1000명 수준으로 시작하며 교육 기간 중 교육생에게 매월 일정액의 교육지원비가 지급된다.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삼성 관계사의 해외 연구소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일부는 직접 채용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해 청년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도 밝혔다.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랩(C-Lab)' 인사이트를 확대해 200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2012년 C-Lab 제도를 도입했으며 창업·분사 이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5년 이내에 복직이 가능해 삼성 내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을 비롯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적극 추진해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연간 400억원(반도체 300억원, 디스플레이 100억원) 수준인 산학협력 규모를 앞으로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팩토리 4.0'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은산분리 기대감에 '네이버·이마트 بانک' 나오나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 관심
신한은행, 조건부 진출 검토
증권업계, 키움증권 진출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누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4대 시중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한은행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고, 통신사와 유통업계도 들쭉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혁신적인 모델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된 상황에서는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전혀 없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설득작업에 직접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전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지금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주주로 있다. 나머지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적극 검토방침을 밝혔고, 하나은행은 이미 SK텔레콤과 '핀크'를 설립한 만큼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향후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거론될 때부터 진출을 적극 검토했지만 모회사인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산분리 규제를 넘지 못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이며, 과거부터 성공

(은산분리 완화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고려 예상 후보군)



/자료=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적으로 이뤄온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에 지분을 투자했고,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을 주력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후보군으로 지목됐지만 그룹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접기로 한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네이버, 이마트 등도 후보군으로 거

론된다.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모두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법 개정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태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배터리 용량·저장 공간 ↑... 노란펜으로 흥행 다시 쓴다

(S펜)

삼성 '갤럭시노트9' 공개 D-1

화면 0.1인치 키우고 베젤 얇아져 노란색 'S펜', 2.4GHz 블루투스 탑재 음악제어·원격촬영·타이머 등 편리 스마트워치·AI스피커도 출격대기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의 공식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갤럭시S9'의 판매 부진 등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갤럭시노트9로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를 전작보다 3주가량 일찍 출시하며 마케팅 역량을 총동원해 전작인 '갤럭시노트8'의 판매량을 뛰어넘는다는 계획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9은 외관상 큰 변화는 없지만 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9의 화면은 노트8과 같은 18.5대 9의 비율을 유지하지만 6.3인치에서 6.4인치로 커지며



갤럭시노트9의 공식광고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전면의 상·하단 베젤(테두리)이 얇아진다. 후면의 듀얼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수평으로 위치하되, 렌즈 옆에 위치했던 지문인식 센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하단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8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1200만 화소의 후면 듀얼 카메라를 갖추고 퀵캡 스냅드래곤845와 엑시노스9810 칩셋이 탑재될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저장 용량과 배터리 수명이다. 갤럭시 노트9은 6기가바이트(G

B) 램(RAM)에 최대 512GB의 저장 용량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용자가 512GB 마이크로SD 카드를 장착하면 1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저장 용량을 갖추게 된다. 1TB는 고화질인 4메가바이트(MB)의 사진 26만장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배터리 용량도 4000밀리암페어(mAh)로 갤럭시 노트8의 3300mAh보다 증가했다.

노란색의 S펜도 기대할 만하다. 삼성

전자는 지난 6월 공개한 언팩 초청장 영상에서도 노란색 S펜의 버튼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며 향상된 S펜의 기능을 예고했다. S펜에 최초로 2.4기가헤르츠(㎐)의 저전력 블루투스를 탑재해 음악 제어, 원격 촬영, 타이머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컨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128GB 모델은 109만원대, 512GB 모델은 13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갤럭시노트9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전작보다 더 많이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를 오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공개한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0시다. 삼성전자 뉴스룸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지휘하는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갤럭시노트9의 공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직후인 10일부터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시장에서는 14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공식 출시일은 24일이 유력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의 공개와 함께 스마트워치 신제품인 '갤럭시워치'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신제품 갤럭시워치는 지난 2016년 선보인 '기어S3'에 이어 약 2년 만에 나오는 신제품으로 삼성전자는 '기어'에서 '갤럭시'로 브랜드를 바꿔 선보일 예정이다. 갤럭시워치는 전작의 배터리 용량인 380mAh 리튬이온(Li-ion)에서 470mAh로 확대해 배터리 성능을 개선했다. 또 스포츠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삼성전자의 AI 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음성명령을 통해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를 탑재한 첫 AI 스피커도 이달 중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 박람회(IFA) 2018'에서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품명은 '매그비' (가칭)로, 가격은 약 33만원으로 예상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는 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러시아 최대 유스포럼인 '테라 사인치아 2018'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유스포럼 참가자들과 LG전자 러시아법인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러시아 유스포럼서 젊은층 공략

'테라 사인치아' 4년 연속 공식후원 프리미엄 가전 설치로 우수성 알려

LG전자가 러시아 최대 유스포럼인 '테라 사인치아 2018'에 참가해 현지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8일 밝혔다.

LG전자는 6월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미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라 사인치아 2018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행사장 곳곳에 올레드 TV, 인스타뷰 냉장고, 트윈워시 세탁기 등 프리미엄 가전을 설치해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테라 사인치아

는 러시아 정부가 진행하는 청년교육포럼이다. 러시아 전역에서 선발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리더 6000여 명이 합숙하며 과학, 정치, 사회 등의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글로벌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포럼을 공식 후원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는 '선행하는 세대' 세션에서 ▲현열 캠페인 ▲LG 광파오븐을 이용한 요리교실 ▲LG 홍보대사인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스타니스라브 체르체소프의 초청 연설 등을 진행했다.

/구서윤 기자

SK브로드밴드 3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SK브로드밴드는 3억 달러(약 3375억원)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채권 발행 주관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BNP파리바, HSBC가 맡았으며 이번 조달한 금액은 오는 10월 만기도래하는 해외채권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정한 글로벌시장 환경 하에서도 스프레드(가산금리)를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6일 아시아·유

럽시장에서 글로벌본드 발행을 선언한 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0억달러(약 2조2500억원)의 주문이 몰렸다. 최초 제시한 미국국채 5년물 1.45% 수준의 가산금리 대비 0.275% 낮은 1.175%의 가산금리에 발행을 마무리했다.

이는 올해 초 글로벌본드를 발행한 SK텔레콤과 동일한 수준이다. 최종 발행금리는 3.994%로 정해졌으며, 쿠폰금리는 3.875%로 책정됐다.

발행한 글로벌본드는 오는 13일 납입을 마친 후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상장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차, 상용차 전용 홈페이지로 소통 강화

'현대 트럭·버스' 개설

트럭·친환경 버스 등 8종 차량 대상 VR콘텐츠로 사실감 있게 경험 가능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전용 홈페이지인 '현대 트럭·버스'를 개설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현대 트럭&버스 웹사이트는 현대차 상용차만의 웅장함과 감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와이드한 화면 구성을 통해 직관성을 높였으며 외부 활동이 많은 상용차 고객들을 고려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상용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상용차 브랜드 중 처음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마련해 차량을 사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현실 콘텐츠는 중·소형 트럭부터 대형 트럭, 친환경 버스



현대차 상용차 전용 홈페이지 '현대 트럭&버스' 메인 이미지.

까지 현재 판매하고 있는 8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제작했으며 고객들은 마우스를 이용해 직접 차량의 내외관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브랜드 스토리·디자인·연구소와 공장 등 상용차만의 브랜드 콘텐츠와 보증수리 안내·상용차 멤버십 등 상용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구성했다.

한편 현대차는 디지털 소통 강화의 일

항으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도 현대 트럭·버스 계정을 론칭했다.

현대차는 플러스친구를 통해 상용차 관련 콘텐츠는 물론 졸음운전 방지 팁, 자동차 캠핑장 추천 등과 같은 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아시아나항공, 2분기 영업이익 380억... 11% 감소

유류비·영업비 지출 증가 영향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6429억원, 영업이익의 38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2분기 매출 1조 6429억원은 창사 이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10억원으로 1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고유가 등으로 38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역대 최대 2분기 매출 실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및 국제 여객수요의 지속 증가(전년 동기 대비 국내 10%, 국제 12%)와 화물사업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등 영업부문 전반에 걸친 고른 실적 달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의 주된 감소 주요인은 유류비 지출 증가(1000억원 증가)로,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유입 4120억원 및 비핵심자산(금호아시아나 그룹 사옥 및 CJ 대한통운 주식) 매각 등 4009억원의 현금유입으로 차입금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4조5700억원에서 상반기 3조 6137억원으로 4433억원을 감축시켰다.

7월말 기준으로는 3조 3319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818억원을 추가 감축시켰으며, 특히 연말까지 차입금은 3조2000억원, 단기차입금 비중은 30% 수준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운용리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회사 기업공개(IPO)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효율적인 주요 요인으로 여객 영업에서 미주 노선 매출이 13% 증가했으며 유럽 노선의 매출도 10%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5월 1일 미주 노선 매일 운항 및 베네치아 노선 신규 취항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양성운 기자

TTL 있는 10·20 저격 브랜드 나온다... SKT '0' 론칭

(영)

컬처브랜드로 미래세대 본격 공략
숫자 '0'·젊음의 'Young' 뜻 담아
월 3만원대 '0플랜' 데이터요금제



SK텔레콤 '0'브랜드 TV광고 모델 한성민 씨가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10대를 겨냥한 요금제와 컬처 브랜드로 미래 세대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K텔레콤은 1999년 신세대를 위한 이동전화 브랜드 TTL을 선보인 바 있다. 약 20년 만에 TTL에 뒤이어 1020세대를 겨냥한 신규 브랜드를 내놓은 셈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음원을 비롯해 디자인 상품,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8일 SK텔레콤은 서울 강남구 SJ콘서트홀에서 열린 1020 컬처브랜드 '0(Young)'을 론칭했다. 0은 숫자가 시작되는 '0'과 '젊음'을 뜻하는 'Young'의 의미를 담았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출시한 데이터 요금제인 '0플랜'은 '스몰·미디엄·라지'로 구성돼 있고, 만 24세 이하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격은 월 3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다.

스몰은 월 3만3000원의 요금제에 데이

터 2GB를 제공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미디엄 가입자는 월 5만원에 데이터 6GB가 제공된다. 라지는 월 6만9000원에 데이터 100GB를 제공한다.

특히 라지 요금제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에서 가족에게 매일 20GB를 공유할 수 있다. 기존 T플랜은 월 7만9000원 '패밀리' 이상에 가입하면 데이터 공유가 가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부모 세대의 경우 스몰 요금제, 자녀는 라지 요금제에 가입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SJ 콘서트홀에서 열린 SK텔레콤 1020 컬처브랜드 '영(O·Young)' 출시 미디어 행사에서 이미연 티에프리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해 데이터 공유를 하면 전체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제의 특징은 원하는 시간대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무제한 시간대는 총 세 구간으로 나뉘었다. 우선 토·일요일 주말에는 2GB 데이터 제공에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매일 0~7시까지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혜택과 매일 지정된 3시간 동안 2GB 데이

터 제공에 3Mbps 속도제어를 할 수 있는 혜택은 올 4분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요금제 혜택뿐 아니라 1020세대 문화에 스며들기 위한 문화 혜택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컬래버레이션 음원인 'SMSTATION X 0'을 공개했다. 오는 10일 태연×멜로망스 음원 공개를 시작으로 ▲엑소 백현×로꼬 ▲팬시차일드 ▲레드벨벳 슬기×여자친구 신비×청하×(여자)아이들 소연

등 컬래버 음원들이 차례로 공개된다.

유명 아티스트인 '노보'씨가 디자인한 티셔츠와 맥주, 가방 등 디자인 상품을 선보인다. 또 별도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오픈해 1020 고객을 겨냥한 축제도 연다.

내달부터는 산학협력 대학생, 근무 체험형 인턴 등과 개발한 라이프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9월부터는 20대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여행과 코칭여행 신청을 받아 '0순위 여행'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캠퍼스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캠퍼스 공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전용 데이터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지원한다. 이를 이용하는 재학생 비중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뿐 아니라 1318 중고생 고객은 넷마블, 네오위즈, 헝그리앱 등 10여개 게임, 커뮤니티, 포토 애플리케이션(앱)을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영화관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충전하고 제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사장)은 "0은 기존 통신 서비스의 틀을 벗어나 1020 세대 문화와 소통하고 이들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흥행 신작'에 엇갈린 명암... 넷마블 '주춤', 위메이드·컴투스 '부활'

게임사 2분기 실적

넷마블, 영업이익 전년비 40% 줄어
중견·중소, IP게임 효자노릇 '톡톡'
위메이드 흑자전환·컴투스 매출 ↑



실적 시즌에 돌입한 게임사들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3N)의 경우 신규 게임의 부진으로 올해 2분기 다소 주춤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중소 게임사의 경우 지식재산권(IP)을 앞세운 게임의 흥행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실적 시즌 포문을 연 넷마블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매출 1조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가량 하락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

적을 기록했다.

이날 넷마블은 지난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5008억원, 영업이익 622억원, 당기순이익 66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직전 분기보다 1.3% 줄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8%, 전 분기 대비 16.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1%, 전 분기보다 16.0% 줄었다.

이는 주력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의 성장이 주춤하고, 흥행을 거둔 신작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4월 말 북미, 유럽에 출시한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터리'가 다수 국가에서 매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쿠기잼', '리니지2 레볼루션', '마블 퓨처파이트' 등 기존작들도 미국, 일본 등 빅마켓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며 해외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넷마블의 2분기 해외매출은 35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5% 늘었다.

회사 측은 하반기 공격적으로 신작 출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넷마블은 현재 글로벌 빅마켓 공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세븐나이츠',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최근 '해리포터',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등 새로운 글로벌 흥행작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단기적 성과보다는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메이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뿐 아니라 조만간 실적 발표를 앞둔 넥슨과 엔씨소프트 또한 눈에 띄는 신작 부재로 매출이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식재산권(IP)을 앞세운 중소기업은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올 2분기 매출 1241억원, 영업이익 364억원, 당기순이익 35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1%, 영업이익은 25.6%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서머너즈 워', 'KBO 및 MLB 야구게임' 등 자사 IP를 앞세운 게임의 지속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해외 매출이 상승해 전분기 대비로는 약 9% 매출 성장을 이뤘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도 신작 모바일 게임의 흥행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날 위메이드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80억원, 영업이익 8300만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5%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위메이드의 실적 개선은 2분기 중자회사 위메이드플러스가 개발한 '피싱 스트라이크'와 조이맥스의 '윈드러너' 등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가 견인했다. 회사 측은 하반기에도 자사 IP인 '미르의 전설2'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업체 5곳과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문화부에서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로운 등록 시스템 'IPC(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Identifier) 플랫폼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의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조인트벤처(JV) 설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IP 사업은 물론, 저작권 침해 게임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 등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웅진렌탈, 공기정화 면적 넓은 '공기청정기 365'

웅진렌탈은 더욱 넓어진 공기정화 면적으로 집안 곳곳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웅진 공기청정기 365'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소비효율등급 기준 67.9㎡(약 20.5평)의 공기정화 면적 능력을 갖췄다. 기존 10평형 제품과 비교해 공기를 뿜어내는 출력을 2배 가량 늘리면서 소음은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크고 작은 방을 비롯해 거실, 주방뿐 아니라 원룸형 오피스텔, 어린 이집 등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365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원터치 모드'도 눈길을 끈다. ▲먼지센서와 가스센서로 최적화된 풍량을 제공하는 자동모드 ▲깨끗한 공기를 3방향으로 토출해 더욱 빠르게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터보모드 ▲소음을 20dB 이하로 최소화해 맑은 공기와 더불어 편안한 숙면을 제공하는 취침모드 ▲2시간마다 30분씩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정화해주는 외출모드로 구성됐다.

또 극세사망 프리필터-맞춤형필터-탈



취필터-헤파필터 등 총 4단계 공기청정 필터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는 물론 냄새까지 감지해 4단계 색상으로 오염도를 표현하는 조명 기능과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매직 핸들과 바퀴도 적용했다. 월 렌탈료는 3만4900원이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SK엠앤서비스 벤처 복지·역량강화 '맞손'

벤처기업협회는 SK엠앤서비스와 '벤처기업 복지·역량 강화 및 효과적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복지혜택을 증진시키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경영활동 지원, 국내외 비즈니스 협력기회 제공 등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지속성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공동으로 협력교류회 실시, 상시 협력파트너 발굴, B2B 글로벌 거래 플



(왼쪽부터) SK엠앤서비스 장만영 상생협력그룹장, 벤처협회 김명수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랫폼 입점 등을 지원해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챗봇’ 도입에 열올렸던 저축은행... 절반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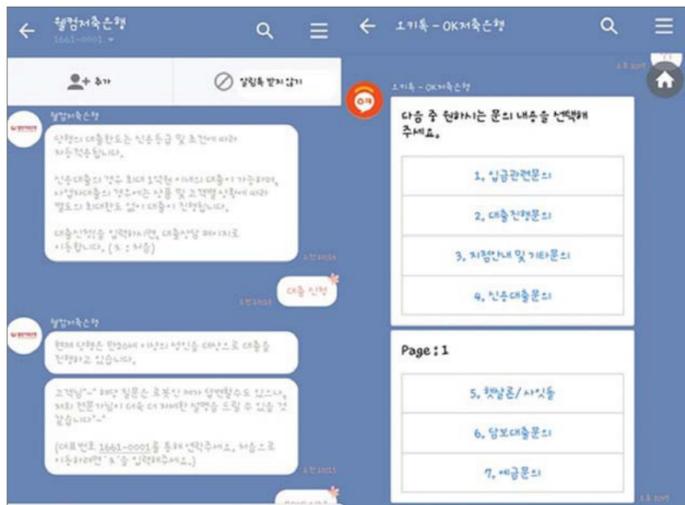
챗봇 사용 고객 만족도 ‘저조’
대화 대신 ‘일괄상담’ 대다수
“답리닝 기반, 좀 더 지켜봐야”

#. 퇴근 후 챗봇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으려던 A씨(35). 챗봇을 통해 대출 한도를 알아보려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상담원과 통화해야한다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다.

고객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데 필요한 인력, 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챗봇(Chat-bot)’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챗봇을 사용한 고객들의 만족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봇이 PC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높은 예적금을 추천하거나 고객보호정책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고객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JT·친애·OK·KB저축은행등 4곳에 이어 SBI저축은행이 챗봇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챗봇을 카카오톡으로 이용한 결과 자연스러운 상담보다는 숫자를 입력해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있다.

올해 2분기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반 챗봇 서비스를 준비해 챗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던 계획이 조금

늦춰진 셈이다.

챗봇 구성은 시나리오 대화 방식과 자연어 방식을 모두 탑재해 자연스럽게 상담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이 탑재될 가

능성이 높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 가장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현재 저축은행 챗봇에 탑재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계획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챗봇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에서 더욱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챗봇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한정적인 대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도입한 챗봇을 이용해본 결과 저축은행 챗봇 대다수가 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상담보다는 숫자 입력을 통한 일괄적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서비스는 예적금 상품추천·문의, 고객보호정책 등에 맞춰져 있었고, 대출한도 문의 등을 하기 위해선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사와 연결해야 했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답리닝 기술을 기반으로 챗봇이 운영되다 보니 이용자가 많을수록

질문의 이해수준이 높아진다는 것. 챗봇이 운영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웰컴봇의 7월 기준 자연어 응답률은 80% 정도”라며 “영업시간의 이용률은 지난 3월 대비 10%가 증가한 43%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률만큼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챗봇 운용자체가 짧은 기간 안에 정략적 도입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소프트웨어 관계자는 “챗봇의 경우 24시간 365일 자동 응대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고객 편의의 제고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챗봇을 도입하게 되면 처음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질문·답변으로만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지난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KT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장현기 부부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KT 김학준 상무(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KT 블록체인 플랫폼 공동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KT 사옥에서 KT와 블록체인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상품권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관련 네트워크 인프라를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플랫폼 내 결

재 및 정산 시스템을 담당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뱅킹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전략본부 내 블록체인Lab을 신설해 해외송금, 무역금융 및 그룹사내 통합인 증서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KT는 2015년부터 블록체인 전담조직을 운영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상용망에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등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희 기자

신한금융 외화 상각형 신종자본증권 5억달러 발행

신한금융지주는 7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미화 5억불 규모의 바젤 3 적격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발행하는 외화표시(USD) 영구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바젤 3 적격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유일하게 투자적격 등급(Baa3)을 부여 받았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3.05%p를 가산한 수준인 5.875%이다.

총 159개 기관에서 발행규모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약 20억 달러의 주문을 확보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86%, 유럽 14%의 분포를 보였다. /유재희 기자



지난 5월 국내금융지주 최초로 국제신용평가등급(무디스 A1)을 취득한 신한지주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 전망과 무역갈등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기를 한 차례 조정 한 바 있다. /유재희 기자

우리銀, 도봉·구로구 금고 수성... 반격 개시

23개구 운영권 두고 시중은행 접전
은행 출연금 규모 구금고 선정 관건

서울시 금고기지의 타이틀을 신한은행에 넘겨준 우리은행이 '구금고 금고지기' 경쟁에서 2개 구의 운영권을 따내며 반격에 나섰다. 앞으로 남은 23개구의 금고 운영권을 두고 시중은행 간의 접전이 예고된다. 특히 24개구 금고지기를 맡아온 우리은행과 서울시금고를 유지한 신한은행이 각각 본점을 두고 있는 21일 금고 운영기관을 발표하는 중구를 비롯해 '최대'인 강남 4구의 금고 운영권을 두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봉구와 구로구는 최근 금고 운영 사업자 입찰 심사 결과 우리은행을 금고지기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도봉구 약 5500억원, 구로구 약 6400억원의 재정을 운영하게 된다.

일각에선 서울시금고의 운영권을 맡게 된 신한은행이 서울시 전산시스템과 구금고 전산 운영을 연계할 수 있어 구금고 운영권 유지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집고 우리은행이 도봉구·구로구 2개 구의 금고를 차지하며 초반 승기를 잡았다.

현재 우리은행은 24개 구의 1금고지기로 지정돼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테스크포스팀(TF) 구

<자치구별 구금고 현황>

자치구	1금고	2금고
강서, 서초, 송파, 은평, 성북, 강동, 구로, 관악, 강북, 마포, 중랑, 동작, 도봉, 영등포, 동대문, 광진, 서대문, 종로, 성동, 중, 금천	우리 (서초, 강서, 도봉은 복수금고)	
용산	신한	신한
강남	우리	신한
양천	우리	국민
노원	우리	국민

성해 기관·공공운영을 유연하게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또 우리은행 주거례 기관고객 시중은행 중 최대로 검증된 기관영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104년 서울시금고 금고지기' 타이틀을 뺏은 신한은행도 시금고 운영권 유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구금고 운영에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가 선정한 금고 입찰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구민의 이용 편의성(20점) ▲전산시스템 등 금고업무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9점) 등이다.

업계에선 구금고 선정시 은행의 출연금 규모가 주요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자치구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가나 시 보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출연금 규모를 중요하게 보리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우리은행을

제치고 금고지기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무려 3000억원을 출연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우리·신한은행은 본점을 중구에 두고 있어 중구청 금고 운영권을 두고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 19일 마감된 서울시 중구 금고 운영사업자 입찰에 신한·우리·농협·국민은행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연간 예산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해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는다. 이외에 ▲강서구 7652억원 ▲노원구 7912억원 ▲은평구 6590억원 등도 주요 관심 지역이다.

한편, 6~7월 금고 입찰 모집을 끝낸 영등포구, 중구, 동작구는 각각 오는 10일, 21일, 23일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직 입찰제안서를 접수 중인 서대문구, 강동구는 9월초에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해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잠자는 저축銀 계좌 ‘1481억’ 찾아가세요

저축은행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돈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고 있었던 저축은행 계좌를 알고 싶다면 오는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본인의 은행·서민금융(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계좌나 보험가입·대출내역, 카드발급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에 맞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 부터 1년이

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계좌는 380만개, 금액으로는 1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0만원 이상의 장기미사용 고객 계좌가 1만3827개로 1207억원 규모다.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372만개, 98억원이다.

저축은행 계좌조회는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열정가득 청년의 꿈,

KB와 손잡고 꿈이 오르다

끝없이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도록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KB와 함께 이루다] **Dreaming Job**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KB가 우리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5년간 1만7천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직·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8만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일으켜 예비 취업자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수주·주택·플랜트 3박자 척척... '1조 클럽' 눈앞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

GS건설

영업이익 6091억... 전년 동기비 320% 증가
 실적에도 부실시공 등 논란에 추가 시큰둥

“시장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경쟁력으로 해 볼 만하다.”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반년 후, GS건설은 이를 방증하듯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크게 웃었다. 상반기에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올해 '1조 클럽'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추가 침체, 부실시공 논란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올 상반기 '장사 잘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3% 증가했다.

매출도 6조7094억원으로 17.8% 늘어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2분기만 봐도 영업이익 2190억원, 매출 3조5820억원, 당기순이익 3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7%, 19.6%, 1297.6% 늘었다.



GS건설 그랑서울 사옥 전경. /GS건설

실적 상승의 원인은 신규 수주, 주택사업 호조, 플랜트 착공 등으로 분석된다.

GS건설은 올 상반기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8460억원), 구미원평2동 재개발(4090억원), 보령

LNG터미널(1930억원) 등을 수주했다.

플랜트 부분의 상반기 매출은 2조117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6.75% 증가했다. 건축·주택 부문도 전년 대비 14.4% 늘어난 3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 중 유일하게 해외 부문에서도 수주 증대를 보였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GS건설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체결한 해외 수주 금액은 6억9297만 달러(7747억여원·8위)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억7866만 달러·10위)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업계에선 GS건설이 올해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송유림 연구원은 “양호한 2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연간 이익 컨센서스(전망치) 상황 조정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며 “실적 발표 이후 2018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예상했다.

그는 “연간 입주물량 2만4000세대 중 상반기가 6300세대고 하반기에 1만8000세대가 몰려있어 하반기 건축·주택 부문의 마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가·브랜드 이미지 회복 관건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에도 GS건설의 주가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한 지난달 26일 주가는

전날(4만7500원) 대비 9.47%(4500원) 떨어진 4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엔 소폭 올라 지난 3일 4만5600원까지 뛰었다가 7일엔 4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GS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6.1%를 나타내 전분기(12.4%)의 절반 밑으로 푹 떨어졌다. 2017년 2분기엔 16.6%, 2018년 1분기엔 15.9%였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실시공 논란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남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7~8일 경북 포항에서 1차 입주자에정자 사전점검에서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및 나사 부식, 소화전의 소방 호스 부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GS건설 측은 입주예정 기간 내 보수공사를 약속했으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서울 본사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며 크게 항의했다.

결국 GS건설은 지난 4~5일 2차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준공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반침하, 건물붕괴 등의 중대 하자일 경우에만 준공 승인이 안 되는데 포항사에서 나타난 건 일반·생활 하자”라며 “점검 기간을 거치며 대다수 입주예정자도 안정됐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의무보수기간 등으로 보수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는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신한알파리츠' 상장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최규준 한국IR협회의 부회장(사진 왼쪽부터), 우영운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정용선 한국리츠협회 회장, 권오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 김규현 국토교통부 국장, 정한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이원선 상장회사협회 전무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흥행 성공' 신한알파리츠 상장 기념식

“개인 소액 부동산투자 대중화 기대”

신한금융투자는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신한알파리츠' 상장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신한알파리츠'는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판교 알파돔 6-4블록'과 오피스빌딩인 '알파돔시티' 등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달 약 5000억원의 규모 중 1140억원에 대해 일반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역대 공모리츠 사상 최대 금액인 4927억원이 몰려 4.32대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4849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소액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소 청약금액을 5만원(10주)로 낮춘 데에 1000만원 이하 소액투자자가 전체 청약자의 약 37%인 1785명에 달했다. 이로써 신한알파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표방하는 '일반 개인의 건전한 소액 부동산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 최초의 성공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지금까지의 리츠나 부동산펀드는 기관 투자자나 거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으나, 이번 '신한알파리츠'의 성공적인 공모와 상장으로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초대형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문호 기자 kmh@

듀얼카메라 부품 삼성에 납품... 성장세 뚜렷

IPO 기자간담회

'카메라모듈 부품주' 액트로

국내의 글로벌 스마트폰기업에 납품
 주당 공모 희망가 2만~2만4000원

카메라 모듈부품 및 설비 제조회사 액트로가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8일 액트로의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9일부터 수요예측을 거쳐 16, 17일 청약을 실시하고 28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2012년에 설립된 액트로의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의 핵심부품과 제조공정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류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AF(Auto Focusing, 자동초점 기구장치)·OIS(광학식손떨림보정장치)·IRIS(조리개 역할) Actuator 등이다.

한화건설 '서산 동문 꿈에그린' 입주율 15%

(일주일 만에)

충남 서산에 공급된 '서산 동문 꿈에그린'의 입주가 시작됐다.

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서산 동문 꿈에그린'은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 일주일 만에 입주율 15%를 넘어섰다. 입주는 오는 9월 28일까지다.

'서산 동문 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471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 ▲59㎡ 119가구 ▲73㎡ 168가구 ▲84㎡ 184가구 등이다.

서산은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해 10만여명이 넘는 고용인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에 '서산동문 꿈에그린'은 투자성과 환급성을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는 서산 도심권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당진, 태안, 대산, 홍성 등 인근 지역 진출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성연-음암간 신철도도가 개통하면 서산 일반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등으로 접근성도 높아진다. 아울러 서산시청을 비롯해 부춘산체육공원, 음삼산공원 등과 가깝다.

학군도 갖췄다. 서산시 명문학교인 서령중·고교를 비롯해 동문초교, 서동초교, 서산시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이 인접해 있다. 서산 최초 '스쿨버스 기증'을 통한 안전한 자녀 통학 시스템도 도입했다.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전용 면적 84㎡로 구성되며 4베이 설계가 도입됐다. 단지 중앙엔 하늘광장이 있고 어린이집,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편의시설도 갖췄다.

'서산동문 꿈에그린'은 서산시내 권 3.3㎡당 600만원대부터 공급, 중도금 무이자 등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홍보관은 서산 동문 꿈에그린 단지 내 상가에 열렸다. /채신화 기자

NH투자증권 1위 영화제작사 IPO 성공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현지기업인 MD 픽처스(MD PICTURES TBK)를 상장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장은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IPO 대표주관을 맡았으며, 이는 올해 들어 세번째 기업공개이다. 이로써 NH코린도증권은 주식 중개에 이어 IB사업까지도 활발히 진행하는 종합증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된

MD픽처스는 인도네시아 1위 영화제작사이다. 2017년 기준 10개 영화를 제작해 개봉했으며, 7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NH코린도증권은 정영태 사장이 선임된 2018년부터 IB, 채권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인력 보강 등 영업력을 강화한 현지 IB데스크는 하반기 시작부터 현지기업 상장 등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NH코린도증권은 기관고객 대상 주식중개영업 및 리테일 신용공여 확대로 2017년에는 약 19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했다. /김문호 기자

靑 “北 석탄 반입협의 없다… 美도 韓정부 신뢰”

‘북한산 석탄 딜레마’ 오해와 진실

선박 5척 ‘러시아산 둔갑’ 의혹
美 “비핵화때 까지 제재완화 없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조사가 약 10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환적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제기됐다.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 의혹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흘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여톤을 선적한 뒤 우리나라로 입항,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에 들여와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사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에도 1만톤이 넘는 석탄을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진롱호도 지난 5월과 6월 국내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연료를 싣고 들어온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롱호는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석탄이 러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롱(Jin Long)호가 서 있다. /연합뉴스

아산이라는 관련 서류가 있고 이를 통해 1차 확인을 했다”며 “아직 혐의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사이닝리치호, 진롱, 안취안저우66 등 5척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기관, 기업들과 정부도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 해주지 않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靑 “미국이 韓 정부 신뢰한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이 클레

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이라고 부르는 제재를 계속 가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것도 바로 이러한 제재 덕분”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뤄내도록 그들 앞에서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남북 통일축구대회’ 11일 서울 상암서 개최

내일 北대표단 도착·환영만찬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다. 무려 11년만에 북측 노동단체가 남측을 방문하는 친선 행사기도 하다. 남측의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은 지난 1999년 평양에서 남북친선축구대회를 연 이래로,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대회를 개최한 이후 3년만에 올해 서울에서 대회를 재개한다.

8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회와 관련한 일정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지난 20년간 정권의 정치성향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남북 노동자들의 뜨거운 통일의 염원, 자부통일의 의지가 낳은 결과물이었다”며 “판문점 선언이 밝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남북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찰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라고 의의를 소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 일정은 우



8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조직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열리는 대회 일정과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왼쪽은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오른쪽은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이다. /오진희 기자

선 금요일인 10일 오전 북측 대표단이 강원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CIQ)에 도착해 환영인사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북측 대표단은 북한 조선직총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선신보를 포함한 6명의 기자단 등 총 6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위커피호텔에서 북측 대표단에 대한 공식 환영식, 남북 노동자 3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북측 대표단의 양대노총 청사방문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선수 단 훈련연습에 이어 저녁엔 환영만찬이 예정돼 있다.

본 대회인 축구대회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뤄진다. 축구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남북 3개단체 대표자 회의가 위커피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같은 곳에서 남북노동자 산별지역별 상봉 모임도 갖는다. 이어 본 대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축구대회 개막선언행사에서 단일기가 게양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관계자가 축사를 한다.

마지막날인 12일 아침 대회 참가자들은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전대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열사 그리고 문익환 목사 묘역을 찾아 헌화한다. 오후에는 위커피호텔에서 응원단의 북측대표단 환송이 계획돼 있다. 북측 대표단은 다시 도라산 CIQ로 이동해 북으로 넘어간다. /오진희 기자 valere@

“은산·금산분리 완화, 공약파기 아냐 대원칙 지키며 운신 폭 넓혀줘야”

靑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은산분리에 대한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8일 “은산분리나 금산분리는 지켜져야한다고 한 기존 입장과(문 대통령)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 취임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입 규제 등 금융 분야의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초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선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 IT기업이 재벌 IT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수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부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통기업 시장 독식, 경제전반 흔들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8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

中 기업 디폴트 125% 급증... '차이나채권 투자 주의보'

3년간 중국 기업상환액 1.7조달러
CERC·신창집단 회사채 '디폴트'
신흥국 채권중 절반이 중국 회사채

저금리 시대, 빠르게 부채를 늘려온 중국 기업들의 채권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과잉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 긴축 기조를 서두르면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향후 중국 기업이 상환해야 할 대규모 부채가 남아 있는 만큼 중국 채권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고 있다.

8일 금융조사업체 딜 로직에 따르면 신흥국 정부와 기업이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하는 채권은 3조2297억 달러다. 회사채가 90%, 국채가 10%다. 상환액은 올해 8819억달러, 2019년 1조1000억달러, 2020년 1조2000억달러로 구

〈국가별 기업 디폴트 규모〉

지역	국가	2015	2016	2017	2018 1~7월
아시아	중국	2,692.2	4,108.4	3,355.4	7,558.7
	한국	0.0	1,178.5	34.7	0.0
	인도	175.0	1,146.7	420.3	0.0
	인도네시아	1,072.5	1,000.0	325.0	0.0
	말레이시아	0.0	100.0	70.5	0.0
동유럽	태국	19.0	0.0	0.0	0.0
	러시아	1,339.9	3,618.5	1,211.5	363.4
	폴란드	62.3	666.3	1.4	0.0
중남미	터키	200.0	295.5	0.0	0.0
	콜롬비아	11.0	0.0	0.0	0.0
	베네수엘라	0.0	0.0	34,938.5	9,000.0
	브라질	9,725.0	27,988.2	540.0	1,000.0
	멕시코	1,400.0	1,925.0	0.0	0.0
	칠레	0.0	695.0	0.0	0.0

단위:백만달러 /자료=EILOOMBERG

모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 중 상환해야 할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다. 전체 신흥국의 회사채 발행규모(5조6860억달러)에서 중국 회사채 비중은 84.0%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흥국의 회사채 발행은 연 평균

26.8%로 고속성장해왔는데 이는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서다.

때문에 향후 3년간 중국 정부와 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채권은 1조7531억달러에 달한다. 신흥국 전체의 5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신흥국 중 러시

아(1330억달러), 멕시코(881억달러), 브라질(1360억달러)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기업이 설비투자과 금융자산 매입 등을 위해 부채를 늘려온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과잉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통화긴축정책을 서두르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중국 내 기업 채무불이행 규모는 올해 7월까지 76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보다 125.2% 확대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석유 및 가스공급기업인 CERC(China Energy Reserve & Chemicals Group)와 홍콩 상장 부동산개발회사인 신창집단(新昌集團)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가 디폴트 처리되면서 관련 채권에 투자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중국의 채무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전체 기업 채무불이행 규모 대비 미달러화 비중은 63.4%, 중국 위안화의 경우 33.1%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채권 상환기간 도래시 채권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보완해야 하지만 중국은 국내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충분하지 않아 달러화 표시 채권발행액도 상당하다.

향후 2019년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신흥국 회사채(3만9896건) 중 절반 이상인 2만2239건이 중국 회사채다. 특히 중국 기업 중 BB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전체 22.8%로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저금리 시대에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이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디폴트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관련 채권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마트 "폭염엔 '냉동과일' 드세요" 이마트가 8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40대에 육박하는 폭염에 매출이 급증한 냉동과일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9일(목)부터 16일(수)까지 일주일간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냉동 블루베리/애플망고/딸기/트리플베리 300g 4종을 각 1,980원에 판매하며 2개 이상 구매 시 1개를 무료 증정한다. /손영지 기자 son@

유진투자증권 매매시스템 구멍 1700만원어치 '유령주식' 풀려

해외ETF 4대1 병합했는데 수량 같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 거래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4배 이상 오른 것을 보고 보유하고 있던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주식병합이란 둘 이상의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을 공장 반영하지 않으면서 가격만 4배로 뛰고 수량은 그대로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매도했고, 이는 정상 체결됐다.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천700만원 정도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데 들어간 비용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애초 증권사가 주식병합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HTS에 매도가능 주식이 665주로 나와 있어 그대로 판 만큼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가격이 하루 새 4배가 뛰었는데 이를 모르고 매도했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A씨가 마땅히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5월부터 시작된 의견 대립은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 다른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거래시 현지 예탁결제원과 국내 예탁결제원 간의 시차 문제로 주식병합 등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현지 예탁원과 국내 예탁원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때 시차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유럽으로 번진 '화재공포'... BMW 32만대 리콜

국토부 운행중지 명령 방안 검토
韓 화재 유발 기술결함 시정 차원

BMW가 국내에서 엔진 화재를 일으킨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테크니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8일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따르면 유럽에서 디젤차 32만4000대에 대한 '테크니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9만6300대는 현재 독일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테크니컬 캠페인은 리콜에 준하는 조치다. 3시리즈부터 X6까지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에 대한 자발적 대응이다. BMW는 테크니컬 캠페인을 진행해 결함이 확인되면 모듈을 교체할 예정이다.

올해 국내에서는 BMW 디젤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결함에 따른 화재가 34건이나 발생했다. 이



지만 화재가 난 차량 모델은 1월 X6, 528i, 2월 428i, 5월 X5 30d, 미니쿠퍼 D, 740i, 7월 미니쿠퍼 5도어, 8월 745i 등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는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BMW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지단이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정영민 기자 yw964@

외국인 돌아왔다... 4개월 만에 1억2000만달러 매수

한은 "3월 이후 처음... 소폭 유입"

한국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들이 4개월 만에 돈 보따리를 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7월 중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7월 한 달간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유입액은 14억3000만달러다.

4월 14억달러 유출한 바 있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5월 27억달러 유입으로 전환한 뒤 3개월 연속 유입 행진을 이어갔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13억1000만달러 유입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1억2000만달러가

유입돼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입세로 돌아선 것은 3월(1억7000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무역분쟁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영향으로 주식자금이 소폭 유입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에 원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7월 말 원·달러 환율 증가는 달러당 1118.7원으로 6월 말(1114.5원)보다 올랐다.

원·엔 환율은 6월 말 100엔당 1006.9원에서 7월 말 1004.7원으로 떨어졌다.

원·위안 환율도 같은 기간 위안당

168.19원에서 163.66원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축소했다. 지난 달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평균 3.9원(변동률 0.34%)으로 전월(5.2원, 변동률 0.47%)보다 줄었다.

월평균 환율과 매일 증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기간 중 표준편차'는 6월 19.1원에서 지난달 6.7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45bp(1bp=0.01%포인트)로 전월과 같았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채권 발행 때 비용이 늘어나면 상승한다. /김희주 기자 hj9@



무자비한 힘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커피도 도시락도 '친환경'에 담는다... '에코 패키지' 열풍

재활용쓰레기 대란... 친환경 움직임 활발
종이소재 '카토캔'·자연분해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최소화해 고객 '가치소비' 발맞춰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등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소비자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친환경'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가치 소비'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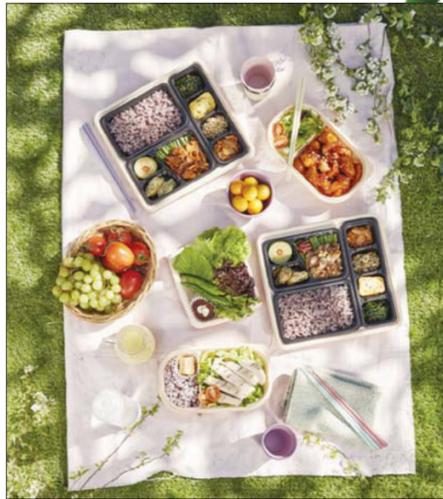
특히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는 등 식품업계 내 친환경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업계 곳곳에서 최소한의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에코 패키지(ECO Package)'를 마련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본아이에프의 본도시락은 플라스틱 대란 이전부터 환경과 소비자를 생각해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친환경 용기는 합성수지 비율을 기존보다 30% 이상 줄여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자연 분해되는 에코 패키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품력과 안정성을 인증받았다. 본도시락 친환경 용기는 전국 본도시락 매장 내 모든 메뉴 주문 시 만날 수 있다.

원두커피 전문 기업 자량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종이 소재의 포장 용기인 '카토캔(Catocan)'을 적용한 '카페리얼 티라떼'를 선보였다. 카토캔은 기존 알루미늄 캔보다 가벼워 뛰어난 휴대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 용기를 적용한 카페리얼 티라떼는 '카페리얼 스트로베리 티라떼', '카페리얼 오렌지 티라떼' 등 2종으로 만날 수 있다.

오리온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재 규격을 축소하고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본도시락 친환경 용기

/본아이에프

다. 제과업계 과대포장 문제가 지적된 2014년부터 20여 개 제품의 포장재 규격을 축소하고 내용물을 늘리며 자발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권의 보호에 나섰다. 이 외에도 브랜드의 포장 디자인을 단순화해 잉크 사용량을 줄이고 협력사와 함께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 중이다.

원앤원의 삼겹살 포장·배달 전문점 '핑크데이'는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핑크데이의 '친환경 이중 용기'는 친환경 소재로 환경을 생각한 것은 물론, 포장 및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식는 것을 방지해 고객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달한다.

엔제리너스커피는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료를 바로 마실 수 있는 '드링크 리드'를 도입한다. 앞서 지난 5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이후 빨대 거처대를 제거하고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내렸다. 이에 엔제리너스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고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가운 음료를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드링크 리드'를 제작했다. 이달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매장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편의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도시락 용기를 도입하고 있다. 편의점 CU(씨유)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도시락 용기를 도입했다. CU '친환경 도시락' 용기는 코코넛 껍질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소재를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40% 감축할 수 있으며, 자연분해도 용이해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BGF리테일 측은 용기의 단가는 기존 용기에 비해 약 2~30% 높지만, 최근 범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례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일회용 얼음컵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완전 투명한 무지 형태로 바꾼다. 기존 얼음컵 표면에 표시했던 브랜드 로고, 바코드 등을 과감히 없앴다. 이르면 8월 중 전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PB 생수 '웅달샘물' 뚜껑을 기존 녹색에서 무색으로 변경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친환경 소재 일회용 비닐 봉투 도입, 휴대용 장바구니 도입, 도시락 뚜껑의 친환경 소재(PET→PP) 변경 등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가 환경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코 패키지 제품을 연달아 선보이는 등 고객의 가치 소비에 발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기자 parkiu7854@metroseou

오피스텔 분양불패 공식은 '배후단지'

청약 마감 9곳 대기업·산업단지 배후

오피스텔 분양 성공 여부는 산업단지 등 배후수요에 달렸다. 이런 분양 불패 공식은 올 상반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40곳 중 1순위 청약 마감 9곳이 모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를 배후단지로 두고 있다.

실례로 청약경쟁률 1위인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105대 1)'의 경우 안양벤처밸리의 연구시설인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외도가깝다.

오피스텔 주변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를 끼고 있을 경우 성공 확률이 높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임차인을 구하기 쉬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매매가격 상승 및 현금성도 뛰어난 편이다. 임대수익률도 높다.

서울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밸리로 주목받고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외와 인접한 가산동의 '램킨 푸르지오시티'의 임대수익률은 5.33%(전용 21㎡)로 서울(4.72%), 금천구(4.80%)를 웃돈다. 삼성전자나노시티(화성, 기흥캠퍼스)와 두산중공업, 한국3M기술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동탄 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한 경기 화성시 능동 '동탄퍼스트빌스타'의 임대수익률은 화성시 평균 임대수익률을 웃돈다.

이같은 입지에 분양 대기중인 오피스

텔로 이달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동문(東門)과 인접한 '평택 고덕아이파크' 21~35㎡, 1200실은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외에도 인근에 고덕신도시, 평택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쌍용자동차공장,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칠곡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주변에 몰려 있다.

이달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56번지 일대에 분양하는 진산건설의 '야당역 이더펠리체' 19~21㎡ 237실의 경우 월동철단 산업단지, LCD일반산업단지,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등 10여개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11월 경기 성남고등지구 C1,2,3블록의 '성남 고등 자이' 아파트 383가구와 오피스텔 151실은 서울 강남과 판교는 물론 송파 문정지구, 고등지구 남측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판교테크노밸리(예정), 제3판교테크노밸리(예정)가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맞손'

각 100억 지원해 500개 공장 구축
150명 규모 삼성전자 멘토단 투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100억원을 지원해 50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DJ 뒷조사 관여 혐의 이현동,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희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사업'에

특히 향후 5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약 25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는 ▲중간 1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 50곳에 최대 1억원 ▲기초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 150곳에 최대 6000만원 ▲소공인·취약지역 및 업종등 기반구축 300곳에 최대 2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중간 1수준 또는 기초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엔 비

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기반구축을 원하는 소공인 등은 필요한 금액에 대해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기업에는 150명 규모의 현직 삼성전자 제조현장혁신활동 멘토단이 투입돼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확산추진단 양찬희 실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조업 부흥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metro경제

행사개요 및 문의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 - 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 최 : 메트로경제

후 원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김영진, 북방경협위원회,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한전工大 설립, 국정 100대 과제”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

2022년 개교 목표로 용역 검토 “특별법·정부 지원도 요청할 것”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이 한전공대 설립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전공대는 최근 설립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강인규 시장과 만난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한전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영업이익 적자에 따른 공대 설립 시기 지연과 규모 축소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애초 계획인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공대 설립 전반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간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공대 설립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일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이 지난 7일 나주시를 방문해 강인규 시장과 만나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나주시

련의 질차이고, 공대 설립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을 검토한 수준”이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대 해석 자체를 요청했다.

이 단장은 “개교 시기에 맞춘 원활한 공대 설립을 위한 비용, 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는 설립 지연이나 규모 축소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한전과의 논의 채널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전공대 입지는 연구대학 중심의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해야지, 지자체 간 무리한 입지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전공대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기아차 광주공장 ‘과학교실’ 개최

여름방학, 지역아동센터 체험 기회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은 7일~8일, 24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보다 알찬! 상상력 가득한 과학교실’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학교실은 지역사회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아차 광주공장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챌린지콘서트’의 여름방학 맞이 체험프로그램이다.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광주시 광산구 오룡동에 위치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과학 관련 체험으로 진행된다. 지난 7~8일 열린 과학교실에서 학생들은 총 3개 팀으로 나뉘어 국립광주과학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과학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 투어하며 국립광주과학관의 신기한 과학 전시물을 관람했으며, 과학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용한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중인 여름방학 특별전 ‘미지의 해양탐험? Under the Sea’를 통해 미래 자원과 생활의 터전이 될 해양에 대한 이해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9종 30여점의 고래, 해양생물 골격염색 표본, 대형문어 실물모형 등 다양한 전시물을 보고, 쥐라기 시대 바다 공룡 체험, 심해 속 VR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지의 해양을 탐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더불어 국립광주과학관 조속경 박사와, 김현승 박사가 진행하는 ‘과학꿈나무 지식멘토링’ 특강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과학 관련 궁금증도 해소하며 신나고 유쾌한 하루를 보냈다.

기아차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주고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는 과학캠프로 초대했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기아챌린지콘서트’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역사회 성장세대 육성을 위한 ‘기아 챌린지 콘서트’ 5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18 기아챌린지콘서트’ 발대식을 갖고 갖고 ‘문화예술교육’에 7000만원, ‘드림토크콘서트’에 8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광주=봉재영 기자 bcy2020@

가평군, 9월 1·2일 ‘수제맥주 축제’ 개최

쉬엄마을서 수제맥주 즐기자!

전국 최초 수제맥주마을서 열려 만들기·홉길 버스 등 체험 다양

경기도 가평군은 전국 최초의 수제맥주마을인 청평4리 ‘쉬엄마을’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제4회 수제맥주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축제가 개최되는 수제맥주마을을 광장(구·청평역사 공동체 정원)은 군이 7억여 원을 들여 2만6천722㎡의 부지에 텃밭 32개소 735㎡, 관리동 208㎡, 지원동 122㎡, 섬마을 기차원 1개소, 연식파고라 등을 설치한 곳이다.

‘가평 수제맥주 축제’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카브

루가 2015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그동안 3회까지 자라섬에서 개최해왔다. 올해는 쉬엄마을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Meet the Local’이라는 주제로 청평4리, GTR(Good Times Rok)와 공동 주최·주관한다.

지역축제인 만큼 마을주민이 직접 진행하는 Beer Class를 비롯해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 행사 ▲지역민이 직접 만들고 키우는 홉길(Hop road) ▲가평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참가업체로는 가평 카브루에 제주맥주와 올산의 화수브루어리, 서울브루어리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브루어리가 참여하고 수입 수제맥주로는 코나브루잉, 에텔바이스, 투올 등의 유명 맥주도 선보인다.

또 진주햄, 스타케밥 등이 참가해 맥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국내 유명 인디밴드와 디제잉 등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축제는 오는 9월 1일 12시부터 밤 10시까지, 2일은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행사장에서 맛보고 싶은 맥주와 음식을 구매해 즐기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경기 가평=고성철 기자 ksc@



기아차 광주공장이 광주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수업보다 알찬! 상상력 가득한 과학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폭염에 뜨거워지는 바다

전남도, 양식장 피해 예방 팔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일부 연안 해역의 수온이 28℃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질원)은 지난 6일 오후 3시 기준의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확대 발령함에 따라 양식장 등에서는 보다 철저한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수온 경보 발령 해역은 보성~고흥~장흥의 득량만해역 내측과, 해남 화산~영광 안마도의 서해남부 내만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득량만해역의 장흥 회진은 29.5도, 서해남부의 신안 압해는 29.9도, 영광 안마도는 29.8도 등으로 매우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바다 수온이 28도 이상 장기간 지속되

면 전복, 넙치, 우럭 등 온대성 양식 생물은 생리 활력이 저하돼 대량 폐사가 우려돼 양식 어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패류 양식장에서는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해상 가두리에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가두리 침하 또는 저층수 순환 등을 해줘야 한다.

전라남도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차광막 설치와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해왔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현장 대응반을 편성해 양식장별 피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김남중 기자

세기의 명작 ‘맨 오브 라만차’ 인천서 막 오른다

400년 동안 사랑받은 세기의 명작 ‘돈 키호테’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 무대 역사상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둔 작품 중 하나인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미겔 드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소설 돈키호테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데일 와셔맨이 대본을 쓰고 미치 리가 작곡했으며, 조 대리언이 작사를 맡았다.

2018년 국내 8번째 시즌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돈키호테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꿈을 꾸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역대 그 어느 시즌 공연보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할 2018년 <맨 오브 라만차>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총출동한다. 세르반테스이자 돈키호테 역에는 대중을 사로잡는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 오만석과 영국 웨스트엔드까지 사로잡은 월드클래스 뮤지컬 배우 홍광호가 캐스팅됐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헬조선, 수저계급론, N포 세대 등 암울한 시대를 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공연 /인천시

영하는 신조어들이 속출하는 현 시대, <맨 오브 라만차>는 꿈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

안성시 ‘선택형 농정사업’ 참가단체 공개모집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2019년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을 내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이며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로 축산물 및 임산물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 기준 1개소당 30억원 이내이며, 신청은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생산자단체의 범위 및 요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이다. /안성=이보현 기자 bhlee7777@

뻘한 물놀이 그만!... FUN한 바다의 매력에 '퐁당'

해수부 다채로운 바다행사 소개
전국 각지서 해양레저행사 열려
다양한 즐길거리·볼거리 '퐁성'
무료입장·चे험비 할인 등 혜택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8월 '국제 해양레저워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관상어 산업 박람회' 등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휴가철을 맞아 시원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소개했다.

◆**부산과 포항에서 즐기는 해양레저워크**
이달 10일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인 '2018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가 열린다.

KIMA는 단순 해양스포츠대회나 체험행사를 넘어 '아시아의 킬위크(Kiel Week)' 행사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2013년 첫 발을 내딛었다. 이 행사는 그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4회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동안 부산에서만 개최됐지만 올해는 지진 피해로 인해 침체된 포항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항에서도 동시에 개최된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요트 위에서 즐기는 각종 공연, 대중가수의 오픈 콘서트 등이 준비된 '바다야 놀자 요트만보기: 요스킹'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지원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

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무료 요트승선권을 제공한다. 또한, 스낵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기간 중 수중레저를 체험하는 관광객에게 체험비의 50%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속초 해수욕장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8월 16일부터 4일간 강원도 속초해수욕장과 청호동 해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해양스포츠대회인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동호인 등 1만명이

참여해 요트, 카누, 철인3종 등 8개 종목에 410개의 금·은·동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경북 울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13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해양레저스포츠 경기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준비했다.

17일 오후 7시 속초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다비치·키썸·장민호·서지오·진성 등 유명가수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수상징검다리 등 20개 체험종목과 바다염서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등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돼 있다.

◆**일산 킨텍스 관상어산업박람회**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관에서는 국내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제4회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및 품평회'가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관상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54개 업체와 6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구피, 비단잉어, 관상새우 등 관상생물, 사료·약품, 수조·용품 전시와 함께 수조 디스플레이 등 800여 개의 출품작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상어 쉽게 기르기 강의, 금붕어잡기, 소형수조 추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afaco.net)에서 관람 사전등록을 할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관람객에게는 전시된 관상어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사진/픽스타

“휴가때 업무연락 싫어”... 방해꾼 1위 동료 서울아산병원, 생체간이식 ‘5000건’ 돌파

휴가 안간다는 ‘꼰대’ 2위

휴가철 최악의 방해꾼 1위로 '업무 연락을 계속하는 동료'가 꼽혔다. 8일 인크루트와 알비콜이 공동으로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0일~27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5%는 '휴가를 방해하는 꼰대'가 있다고 응답했다.

여름휴가 최악의 방해꾼으로는 '업무 연락을 계속하는 동료', 즉 휴가스틸러(35%)였다. 이외에도 '본인은 바빠서 휴가 못가지만 너희는 가라며 빈정거리는 꼰대맨'(18%), '휴가 후 많은 업무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휴가 저승사자'(18%), '휴가 후 일드미 폭탄을 투하하는 일강패'(14%), '기념품을 부탁하거나 대놓고 언급하는 선물 테러리스트'(12%) 등의 꼰대꼰대 유형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휴가 방해를 뿌리치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일까. 직장인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원만한 휴가 사용을 위해 거짓말을 해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여행 일정을 이미 잡아놨서 바꾸기 어려워요'(31%), '가족여행 가요'(19%), '집에 일이 생겼어요'(18%)와 같은 거짓말이었다.

직장인 중 올해 휴가 계획이 있는 경우는 64%, 이미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5%, 현재 휴가중인 경우는 1%로 휴가를 가는 경우는 총 70%였다. 반면에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는 30%로 직장인 10명 중 3명 꼴로 올해 여름 휴가를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직원들(상사)눈치'(2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로는 '부족한 휴가비'(18%), '부족한 휴가일수'(16%), '타인과 휴가일정 조율'(12%), '과도한 업무량'(11%)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용 기자 hys@

단일 의료기관 중 '세계 최초' '2대1 생체간이식'도 500건

서울아산병원은 생체간이식 수술 5000건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시행한 이후 24년 만이다.

간이식은 보통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간이식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뇌사자한테 기증받은 간을 이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생체간이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이뤄진 전체 간이식 6023건 중 생체간이식이 83.2%에 달한다.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는 "생체간이식 5000건은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최초의 성과"라며 "말기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절체절명의 중증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대기록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서 2000년 3월 세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교수(오른쪽)가 해외 의료진에게 생체간이식 수술법을 전수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계 최초로 성공한 '2대1 생체간이식' 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2대1 생체간이식은 이승규 교수가 개발해 서울아산병원이 주로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법이다. 기증자 조건에 맞지 않아 생체간이식 수술이 불가능했던 말기 간질환 환자들에게 기증자 2명의 간 일부를 각각 기증받아 한 명의 수혜자에게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 방법이다.

세계 2대1 생체간이식 수술의 95% 이상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 해외 환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중국, 홍콩 등 최근 3년간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을 찾아온 해외의학자 수만 1500여명에 달한다. /박인용 기자 parkyu7854@

해수부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 금강에 방류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사진)의 서식환경과 생태 특성 등을 밝히기 위해 8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금강에 표지표를 붙인 어름치 100마리를 방류했다.

어름치는 한반도의 토종 어류로 한강·금강에서 주로 서식했지만 수질오염 등으로 점차 발견하기가 힘들어져 1978년부터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어름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01년 어름치를 인공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2008년에는 인공 생산된 어린 어름치(4~6cm) 5000마리를 금강수계인 전북 무주군 지역에 방류했으며 1년 후인 2009



년에 산란탕 30여 개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방류는 2012년에 인공으로 생산된 어름치 100마리에 표지표를 부착해 실시하며, 해당 지역은 깨끗한 수질에 자갈지대가 펼쳐져 있고 먹잇감도 풍부해 최적의 복원지로 평가됐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방류 이후 어름치 서식상황과 서식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신고 등으로 확보한 어름치의 생태정보는 향후 대량 방류 및 복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모레부터 14일까지 해수면 가장 높아진다

침수피해 주의... 현장조사 실시

국립해양조사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8월 대조기에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침수 예상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여름철 고수온,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 요인이 있다. 이번 8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부피가 팽창한 바닷물에 그림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2일에는 남해안(완도, 마산 등)과 제주지역에서, 13일에는 서해안 지역(인천, 군산, 목포 등)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 목포, 마산(창원) 등 일부지역은 지난 '슈퍼문' 대조기에 이어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천 지역의 해수면은 최대 979c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그간 지자체를 통해 침수사태가 접수됐던 7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간 고조정보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hight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내외 블루스 뮤지션 20팀 10월 플랫폼 창동61에 뜬다

신촌블루스, 블루스파워, 노만잭슨밴드 등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 뮤지션 20팀이 플랫폼창동61에 뜬다.

서울시는 10월 13~14일 도봉구 플랫폼창동61에서 '2018 서울 블루스 페스티벌'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축제는 한국블루스 전설로 불리는 이정선과 엄인호가 재결합한 신촌블루스의 공연과 블루스계의 어벤저스로 불리는 블루스파워(한상원, 신대철, 찰리정)의 무대가 마련돼 있다.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1일권은 5만5000원, 양일권은 8만8000원이다. /김현경 기자 hik1@

보트·번지점프도 실내서... 롯데百 VR 테마파크 오픈

건대점에 업계최초 '몬스터VR' 래프팅·열기구 등 60개 콘텐츠 오픈기념·SNS 등 이벤트 진행



롯데백화점이 오는 10일부터 건대점에 선보이는 '롯데 몬스터 VR' 실내 테마파크.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가상현실(VR) 실내 테마파크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0일 건대점 10층에 백화점 업계 최초의 VR 체험관인 '롯데 몬스터 VR' 실내 테마파크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영업면적 1400㎡의 '롯데 몬스터 VR'은 60개 이상의 다양한 VR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9월 엘큐브 흥대점에 상권에 적합한 콘텐츠의 도입을 목적으로 '가상 현실(VR)체험관'을 오픈한 바 있다. 엘큐브 흥대점 3층에 위치한 VR 체험관은 148㎡ 규모로 '금광 캐기', '승마 경주', '외나무다리', '놀이기구 체험' 등의 다양한 VR 체험 기구를 설치해 주말 대기 시간이 1시간에 육박하는 등 10~20대 젊은 세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

다. 건대점의 경우 20~30대 고객이 전체 매출 구성비의 35%로 전 점에서 가장 높고 대학가인 주변 상권 특성상 주말에도 친구, 연인 단위의 젊은 고객들 비중이 높다. 이에 롯데백화점 테넌트MD팀은 VR 플랫폼 개발 회사 'GPM'과 함께 건대점에 VR테마파크 1호점을 오픈했다.

'롯데 몬스터VR'은 '몬스터 어드벤처', '몬스터 판타지', '몬스터 시네마', '몬스터 카페'로 구성돼 있으며 설치된 기구는 1인승부터 12인승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VR 콘텐츠 보유로 동시 탑승인원만 약 100명까지 가능하다.

'몬스터 어드벤처'는 야외 활동 관련 VR 기구로 구성돼 있다. 보트를 타고 빠른

물살을 가르며 정글을 헤쳐 나가는 체험 VR인 'VR래프팅', 나무 사이로 이동하며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번지점프', 탑승인원 10명과 함께 실제 롤러코스터 기구를 타는 듯한 '롤러코스터' 등의 VR 기구가 있다.

'몬스터 판타지'에서는 높은 층고와 거대한 스케일을 활용한 대형 VR 기구가 설치돼 있어 더욱 생생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정글 속의 다양한 동물들과 화산폭발 등의 경치를 만끽 할 수 있는 '열기구', 어린 아이들도 체험이 가능한 VR인 '판타지트리VR', 실제 체트기를 탑승하고 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이로 VR' 등의 기구로 구성돼 있다.

독립된 쾌적한 공간에서 게임, 영상 등 약 50개의 VR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는 '몬스터 큐브'도 8개 설치했다. '몬스터 큐브'는 특히 가족 단위 고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로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VR 콘텐츠이다. '몬스터 시네마'에서는 다양한 VR 전용 영화를 최대 14인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어 기존 영화

와는 다른 생동감을 전달한다.

148㎡ 규모의 '롯데 몬스터VR' 카페인 '몬스터 카페'도 있다. 몬스터 카페에서는 체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음료와 스낵을 판매하고 있어 VR체험과 동시에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 몬스터 VR'의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건대점 1층에서는 10일부터 12일까지 닥트 이벤트를 진행해 당첨고객에게 자유이용권을 증정한다. 또한, 몬스터 VR 인증 사진을 SNS에 등재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상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MD개발부부장 유형주 상무는 "VR테마파크는 기존에 백화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텐츠로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대점 주요 고객인 20~30대와 가족 단위 고객들의 집객과 체류 시간 증대, 새로운 문화 생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신라 인터넷면세점, 영문몰 서비스 시작

중국·일본 몰 이어 동남아고객 공략 14일부터 모바일 앱 서비스도 개시



신라인터넷면세점이 영문몰 오픈했다.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남아 고객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신라인터넷 면세점 영문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늘어난 동남아 고객을 잡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신라인터넷면세점 영문몰 운영을 시작했다. 모바일 앱(APP)은 오는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00년 처음 인터넷면세점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4년 중국몰, 2017년 일본몰을 열며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번에 영문몰까지 추가해 중국인과 일본인 외에도 한국을 찾는 전 세계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높였다.

신라면세점이 영문 인터넷면세점 운영을 시작한 것은 최근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 지역으로 동남아와 중동 등 중국과 일

본 외 지역이 떠오르는 추세를 따른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화권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와 중동 지역 관광객 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는 상반기 전체 방문객 중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6월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베트남 관광객과 태국 관광객 수는 각각 49%, 18%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동남아 및

기타 국적 고객의 면세점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의 기타 국적 고객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특히 기타 국적 고객 매출 중 동남아 국적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평균 17%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5%대로 증가했으며 올해 6~7월에는 30%를 넘어섰다. 동남아 고객의 올해 7월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 늘어났다.

신라인터넷면세점 영문몰에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동남아 고객의 특성에 맞춰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또한 동남아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영문몰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어와 태국어로 운영하는 신라면세점 페이스북 계정도 신설했다. 동남아 국적 고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태국 고객을 위해 기존에 영어로 운영하던 SNS 채널 외에 추가로 베트남어와 태국어로 운영하는 계정을 만들어 특별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김민서 기자

디저트 카페 '설빙' 캄보디아 진출

태국·일본 등 7개국으로 확대

디저트 카페 '설빙'이 해외 사업을 확대한다.

설빙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1호점 '설빙 캄보디아(Sulbing Cambodia)'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태국, 일본 등에 이어 총 7개국에서 설빙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류 열풍이 거센 캄보디아에 처음 진출한 한국식 디저트 카페만큼 오픈 첫날에는 매장에 300여명의 현지 고객들이 방문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설빙은 캄보디아 매장 오픈을 앞두고, 한국 디저트의 전통은 살리면서 설빙만의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현지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 및 메뉴 조율을 거쳤다.

국내 판매 1위 메뉴인 '메론 빙수3종'은 메론을 통째로 올린 독특한 비주얼로 눈길을 끌어 캄보디아 1호점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한국 음식 문화에 호기심이 많은 현지인들에게 떡볶이를 넣은 퓨전 디저트 메뉴인 '치즈 떡볶이 피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민고 먹는 종가집 '볶음밥 2종' 출시

대상이 국내 포장김치 시장 1위 브랜드 종가집을 앞세워 냉동밥 제품을 확대한다.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냉동밥 시장 규모는 700억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는 매년 200억원씩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더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대상은 잘 익은 종가집 김치로 맛있게 볶아낸 '종가집 볶음밥' 2종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종가집 볶음밥' 2종은 '종가집 김치 볶음밥'과 '종가집 깍두기 볶음밥'으로 구성됐다. 우선 주재료로 종가집의 비법으로 담은 100% 국내산 김치, 깍두기를 사용해 맛에 차별화를 뒀다. 같이 볶는 부재료도 중요한 만큼, 고소하고 바삭하게 훈



종가집볶음밥 2종. /대상

연한 청정원 베이컨을 큼직하게 썰어 넣었다.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급속동결로 갓 볶아낸 볶음밥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인분씩 개별포장 돼 있으며, 전자레인지에 4분, 후라이팬에 3분만 데우면 갓 조리한 듯한 볶음밥이 완성된다. 가격은 400g에 6980원이다. /박인용 기자

GS리테일 '해녀·독도 라면' 판매수익금 기부 '상생상품'

GS리테일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을 실천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와 GS슈퍼마켓은 '(사)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와 손잡고 만든 '유어스 제주해녀 해물맛 라면' (이하 해녀 라면)과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유어스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 (이하 독도 라면)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9일부터 판매되는 두 상품은 수익의 일부를 제주해녀협회와 울릉군에 기부하는 지역 상생 상품이다. /김민서 기자



이마트24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샌드위치'

이마트24가 업계 최초로 수박을 콘셉트로 한 샌드위치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샌드위치(사진)'는 수박의 가벼운 단맛과 햄의 짭조름함, 예그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상품으로 가격은 3000원이다.

수박 색감의 식빵은 수박 파우더, 수박 향 시럽 등을 넣어 구현했다. 수박껍질은



녹차분말을, 수박씨는 초콜릿을 각각 적용했다. 수박의 맛을 강조하기 위해 샌드위치 내용물을 햄과 예그로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박'과 '수박'의 동음을 이용한 언어유희적 표현을 상품명에 반영, 보는 재미도 더했다.

이마트24는 수박이 7~8월 제철과일인 점을 감안해 8월 말까지 샌드위치를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24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샌드위치 구매 고객에 한해 수박맛이 나는 젤리(수박바젤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민서 기자

"오늘 저녁 싱싱한 대구탕 어때요?"

롯데마트, 산지직송 생물대구 판매

롯데마트가 생물 대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9일부터 22일까지 전 지점에서 '국산 생물 대구 중(700g 내외)'와 '국산 생물 대구 왕특대(2kg 내외)'를 1마리당 각각 4800원, 1만4800원에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충남 보령 등 서해 포구의 산지 중매인과 직접 거래해 가격을 낮췄

며, 당일 새벽 인근해에서 어획한 생물 대구를 콜드 체인 시스템을 통한 산지 직송 방식으로 신선함을 극대화했다. /문씨 기자



현대차정몽구재단, 농·산·어촌에서 재능기부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일까지 전국 대학(원)생들의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을 진행한다. 8일 밝혔다.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은 방학 중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교육 소외 현상에 놓여있는 농·산·어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재단에서 선발한 대학(원)생 교육봉사자들이 여름·겨울방학 동안 전국의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찾아가 직접 기획한 주제별 에듀테인먼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1주일간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올 여름으로 13회째를 맞는 '온드림스쿨 다



2018 여름방학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생 교사가 진행하는 창의미술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빈치교실'은 전국 대학(원)생 30개팀 104명이 참여했으며, 600여명의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과학·정보기술(IT), 문화·

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한다.

정몽구 재단은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에 참가한 대학(원)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대학교 교수진과 초등학교 교사진으로 구성된 교육자문위원단의 일대일 교육컨설팅을 진행했다. 교육 기간 동안 사용할 교재와 수업 교구 구매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숙식비, 교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 준비도 재단이 돕는다.

한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문화예술 진흥 ▲미래인재 양성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최창수 수석부행장(오른쪽 네 번째)과 경영기획부 직원들이 8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물품 전달과 점식배식봉사를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 돌본다

NH농협은행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부행장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돌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창수 수석부행장과 경영기획부 직원들 이날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삼계탕 250인분과 수박을 전달하고, 점식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이 고양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다.

같은 날 김철준 부행장과 정보보안부 직원들은 안양시에 위치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고, 지난 7일에는 박철홍 부행장과 여신심사부 직원들이 인천시에 위치한 성인의 집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선풍기와 수박을 전달하고 배식봉사도 실시했다.

오는 10일에는 주재승 부행장과 디지털금융부 직원들이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다.

최 수석부행장은 "농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건강히 여름을 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됐다"며 "농협은행은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동화그룹 임직원 가족 '워라벨' 쟁긴다

동화그룹이 직원과 가족들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동화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2004년부터 15년째 '자녀와 함께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 행복충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 연수원인 동화컬처빌리지도 임직원 가족들을 위해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다.

해외탐방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직원과 자녀들이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화그룹의 해외 사업장 중 한 곳을 방문, 부모

의 직장에 대한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고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에도 총 6쌍의 직원 가족이 베트남 호치민 인근 빈푹성에 위치한 VRG동화의 중밀도섬유관(MDF)공장을 견학하고 현지 전통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VRG동화 MDF 공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베트남 MDF 시장에서 3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 가족 행복



동화그룹 직원과 자녀들이 베트남 무이네에 위치한 화이트샌드 사막에서 사륜구동 오토바이 체험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화그룹

충전'도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다. 가족 또는 직장에서 있었던 행복 사연을 응모하면 회사는 분기별로 두 쌍의 직원 가족을 선발해 국내 여행을 전액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8월 9일 (음 6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60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겠다. 72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욕심을 버려라. 8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 소** 49년생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기니 마음이 흡족. 61년생 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세상에 없다. 73년생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마라. 85년생 명예는 높일 수 있으나 실리는 별로 없는 하루.
- 호랑이** 50년생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62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옷과 우산이 필수. 7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 잘 해결된다. 86년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감을 명심하라.
- 토끼** 5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63년생 돌이 있어 끄는 외로움이 혼자인 외로움보다 크다. 75년생 물을 두려워해서는 수영선수가 될 수 없다. 87년생 기대가 크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 말** 52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64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 적극적으로 행동. 76년생 나의 실력을 남들이 알아주는 하루. 8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다음 날 찍어라.
- 뱀** 5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더 커진다. 65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 77년생 충고는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89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 말** 54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하니 새로운 일을 시작. 66년생 피곤한 날이니 금전 거래는 하지 마라. 78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오니 주의. 90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차분한 행동이 중요.
- 양** 55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낙담하지 마라. 6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79년생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91년생 여행을 가게 되면 상비약을 반드시 챙겨라.
- 원숭이** 56년생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아량이 필요. 68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80년생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하루. 92년생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닭** 57년생 한 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한 법이다. 6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뿐. 81년생 작은 먼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93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 개** 58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0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하겠나. 82년생 밖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선날. 94년생 기쁠 수 있는 그들이 그리운 날.
- 돼지** 59년생 지난일은 다 뒤로하고 새 출발로 위기를 벗어난다. 71년생 어찌 봤던 그 사람이 귀인인가 싶은 생각. 83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5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5	4		7	1			
	9	1		8	7			
9	8	2		5	4			1
	4		9				2	
5	3	8		4	9			7
	6	7		9	5			
	4	3		1	2			
			4					

			7	8				
			5	6				1
			4	3			6	2
	4		3		1			
6	5	1					7	
	9	2						
5			3				8	7
		6	5				2	
	8	3					4	

스도쿠 정답								
8	1	9	2	7	5	4	6	3
6	2	3	1	9	8	7	5	4
3	5	6	8	4	1	9	2	7
1	9	6	7	1	8	5	2	3
5	2	8	3	6	9	1	7	4
1	3	7	5	4	2	8	9	6
9	5	4	8	2	1	6	3	7
2	6	1	3	9	7	5	8	4
7	8	5	9	6	2	4	1	3
5	1	7	6	2	9	3	8	4
3	6	2	8	5	1	9	7	4
1	8	9	7	1	3	6	2	5
8	3	5	1	9	7	2	6	4
7	4	6	2	8	1	5	9	3
9	2	1	5	3	6	4	7	8
2	9	4	8	7	3	1	5	6
1	7	8	9	6	5	4	2	3
6	5	8	1	2	3	7	9	4

문제 제공= 보스



김상회의四季

재물과 관련한 액난

부처님의 기세간경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시절에 보이는 양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다.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지구와 인간사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흡사해 지구의 종말이 정말 다가온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진과 자연재해 등 환경파괴로 인해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넘어 친족 간의 살상 등의 현상을 보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기독교의 인간관 역시 우리 인간들은 원죄의 속성이 있다고 본다. 모든 악한 행동의 뿌리는 모두 원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기의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심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은 기세간경의 묘사나 성경의 요한계시록과도 상통하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의 선과 악을 단순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 예로 양상군자(梁上君子)란 고사성어를 들고 싶다. 중국 후한(後漢) 시절 진식(陳寔)이란 관리가 있었다. 그가 밤에 공부를 하는데 도둑이 들어와 대들보 위에 숨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이에 진식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얘기하길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란 없다. 오직 어려운 상황을 맞아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데 저기 대들보 위의 군자도 마찬가지니라." 라고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도둑이 대들보에서 내려와 진식에게 절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에 진식은 "네 상을 보니 처음부터 도둑은 아님을 알겠다. 지금부터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며 가르침을 주고 선물까지 주어 보냈다는 고사이다. 양상군자의 고사를 보다보면 상황논리에 따라 인간의 선악은 절대선과 악을 구분 짓기 힘든 것이며 이러한 예는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도 보여지는 바다. 양상군자의 고사에서 보여 지듯 비록 사는 처지가 힘들어 도둑질을 할지언정 내면의 양심과 본성까지 훼손된 것이 아니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개과천선할 수 있는 고귀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보는 것이다. 선하고자, 악하고자 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양심에 내재된 종자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절이 더 할수록 인간의 심성이 더욱 황폐해지고 엄격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몹시 우려스럽다. 팔자에 재물 궁이 신약한데 백호살이 있는 경우는 재물과 관련한 액난에 놓일 경우가 생긴다. 특히 세운과 충살(衝殺)이나 파살(破殺)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운은 더욱 농후해지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진성오 소장
심리 카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낀다. 특히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내담자나 환자 분들 중에 외롭다는 느낌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이를 먹을수록,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들수록 혹은 정신없이 바쁜 틈의 짧은 휴식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주는 어려움으로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고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자신을 무디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모험가는 1980년에 단독으로 에베레스트를 올랐다. 그가 혼자 어떻게 그 추위와 고통을 견디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을까? 조난을 당해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몇 주를 어떻게 견디는가? 어떻게 작은 배에 혼자 자신을 맡기도 몇 개월씩 단독으로 태평양을 항해하는가?

우선,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적어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

럽고, 고립되어 있는 감정이며 부정적인 것이다. 과거에 빠져 안 좋은 기억이 머리에서 소용돌이 치고, 잠시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내 현재 경험되지 않는다는 괴리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이끌고 재경험하게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해 욕하고 부정하고 깎아 내리고 그러한 일이 생긴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분노감을 경험하게 된다. 혼자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 외로워진다.

그렇다면 '홀로 있음'은 무엇일까? '홀로 있음'이란 혼자 있지만 간섭받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 있음으로 해서 뭔가 고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유 있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로움과 혼자 있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식의 방향에 있다.

혼자 있음은 주의와 의식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 자신에게 향하는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빠져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거에 상처 받은 것들을 떠올리는 습성을 드러낸다. 이걸 우리 조상들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 생긴 생존의 진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통찰을 주는 좋은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 하면서 일종의 자기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과거에 사로

잡혀 고통을 재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홀로 있음은 의식이 밖으로 나간다.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으로 의식이 확장되며 주변을 관찰하고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과 주변의 것들에게 시선을 보내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자아라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연결된다. 이곳에 나 혼자만 있다는 좁은 의식에서 벗어나 자아의식의 밖에 다른 우주와 세상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혼자 며칠 혹은 몇 개월을 지내면서 모험하는 모험가나 산악인들 혹은 바다 한 가운데 별만을 의지해서 항해하는 탐험가들은 바라보는 해와 산과 별들로 의식을 확장시켜 절대적인 고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외로움이 알고 보면 이 세상과 우주와 연결되는 비밀의 문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홀로 보낸 고독한 40일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은 사막과 밤의 별 속에서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을 것이라 상상한다. 혹시, 지금 외롭다면 자신의 의식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과 자연에 돌리고 확장시키는 연습을 진행해 보자. 고독함 자체를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혼자서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당신의마음 연구소장



LG전자-해비타트, 브라질 빈민가 교육환경 개선
LG전자와 해비타트는 7일(현지 시간) 상파울루 시내 LG전자 브라질 법인에서 상파울루 엘리오폴리스 빈민가 아동청소년센터(PAM) 환경개선사업 지원 협약을 맺었다. LG전자 중남미지역대표 겸 브라질법인장인 변창범 부사장과 해비타트 브라질의 마리오 비에라 사무총장(왼쪽)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 지진피해 성금
KB국민은행은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허인 KB 국민은행장,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김윤희 대한적십자사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손보, 다문화 가정 어린이 대상 'KB희망드림캠프'
KB손해보험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아산시 소재 교원연수원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 50명을 초청해 방학 캠프 프로그램인 'KB희망드림캠프'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KB희망드림캠프는 KB손해보험이 국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리더십과 사회성,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자원봉사를 자청한 15명의 대학생들이 2박 3일간 아이들의 교육 멘토가 됐다. /KB손보



동양생명, 수호천사 착한인형 만들기 캠페인
동양생명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재단법인 한코리아와 함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수호천사 착한인형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8일 밝혔다. 이는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동양생명 수호천사 캐릭터 펠트인형을 직접 만들어 보내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완성된 400여개의 인형은 검수과정을 거쳐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bhc, 아시안게임 카누·조정 남북 단일팀 후원
bhc치킨이 2018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카누·조정 남북 단일팀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구성된 카누·조정 남북 단일팀이 훈련하고 있는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의 단합과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치킨을 깜짝 선물로 전달했다. 후원식에서 카누·조정 남북단일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hc

아동수당 계산법



기지수첩
안상미
(파이낸스&마켓부)

"지금 살고 계신 곳 전세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녁 9시 반이 넘어 구청이라며 전화가 왔다. 뜬금없는 질문에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싶어 무슨 용건인지 물어보니 아동수당 계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세금을 말하니 아동수당 수급 기준을 넘어섰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한정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자는 당연히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확

신했다. 맞벌이지만 둘의 월급을 합쳐야 대기업 한 사람 연봉 정도다.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하다. 하지만 강북에, 그것도 20평대다. 혹시 몰라 공시지가를 확인했지만 기준 이하였다.

종합해보면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분명 아동수당 제외 기준인 대한민국 상위 10%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알아보니 문제는 아직 세 살인 딸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낮 동안 바주실 전셋 근처로 전세를 얻어왔던 데 있었다.

가지고 있던 집 A를 전세를 주고, 같은 가격의 전셋집 B로 이사했다. 두 집의 전세가 가격이 같기 때문에 재산은 전혀 늘어난 것이 없어야 하지만 아동수당 계산법은 달랐다.

임대보증금, 즉 B의 전세가격은 95%가 재산으로 인정된다. 반면 소유하고 있는 집 A에 대한 전세가격은 어떤 계약이

오갔던 간에 공시지가의 50%까지만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자산이 2억원 이상 늘어나 버렸다. 게다가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전세가 나가지 않아 대출을 갚기 위해 금리가 가장 낮은 인터넷전문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썼지만 한도대출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결국 있지도 않은 자산 3억원이 더해져 기자는 상위 10%의 계층이 됐다. 이걸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계산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복잡한 계산 방식을 통해 고소득층으로 걸러지는 중소득층이 기자 한 사람뿐일까. 왜곡된 계산법으로 밤늦게까지 고소득층을 걸러내는 수고가 끝나면 걸러진 이들의 한탄에 아동수당을 둘러싼 갈등 2라운드 가 시작될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인사

◆**산림청** ◇ 서기관 승진 △ 산림휴양등산과 임원필 △ 산림환경보호과 함태식 ◇ 기술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원희 △ 산림자원과 진재식 △ 백두대간보전팀 박기완 △ 산림청 전덕하

- ◆**코스콤** ◇ 신입 팀장 △ U2사업팀 김덕기 △ U2L기술팀 김남대
- ◆**가천대 길병원** △ 1진료부원장 김동영 △ 2진료부원장 양혁준 △ 수석진료부장 이상표 △ 1진료부장 정옥진 △ 2진료부장 전용순 △ 진료지원부장 김정호 △ 교육수련부장 겸 감염관리실장 엄중식 △ 전산정보보부장 겸 헬스IT연구센터장 박동균 △ 의료정보센터장 이종준 △ 약사위원장 최혜영 △ 장비위원장 이정남 △ 홍보실장 심재양 △ VIP 건강증진센터장 김경곤 △ 장기이식센터장 박연호 △ 심혈관센터장 안태훈 △ 권역외상센터 소장 이정남 △ 권영응급센터 소장 양혁준 △ 인공지능센터장 백정훈 △ 소화기센터장 권오상 △ 간호부장 조옥연

위·미영 씨 부친상, 유지명(기아자동차 근무)·윤이원(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상무)씨 장인상, 백경운 씨 시부상 = 8일,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지하 1층 206호, 발인 10일 오전 5시 30분, 장지 경기도 고양시 벽제 송화원. (02)2215-4444

▲ 임수영(전 주브라질대사관 상파울루 총영사)씨 별세, 임석진(법무법인 양현 변호사)·희선·경선(작가)씨 부친상, 박홍규(전 SK텔레콤 상무), 위원식(스포츠서울 편집국장)씨 장인상 = 8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63

▲ 오균택(동일주유소 대표)씨 별세, 재익(㈜노나 대표)·재용(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정숙·춘화·정희·정순씨 부친상, 김진호(유)신홍물산 회장·김영균(한국마사회)·홍서표(대한항공 기장)씨 장인상, 한영미·박경희씨 시부상 = 8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010)-8893-789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0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10호

상반기 경력직 채용, 신입 '5배'

산업구조·직무중심 채용 변화
신입보다 경력 '수시채용' 확산
IT·제조·화학 등이 경력 비중 ↑

유래없는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구조와 직무중심 채용 문화로의 변화에 따라 수시채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력직 채용이 신입 채용의 5배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인구직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자사 상반기 채용 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화학' 분야가 전체 공고의 24.4%를 차지해 채용이 가장 많았던 업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24.6%)와 비슷한 비율로, 상반기 제조업이 주축했지만, 반도체·정유·화학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채용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화학에 이어 '서비스업'(14.7%), 'IT·웹·통신'(13%), '건설업'(10.6%), '판매·유통'(9.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IT·웹·통신' 업종의 채용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p 증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



지난 7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중앙정원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클럽핑 페스티벌 형식의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홈플러스

하고 있었다. 반대로 '판매·유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올 해 상반기 채용공고는 5.2%p 감소했다.

수시채용과 직무 중심 인재를 발탁하는 기업이 늘면서 경력 채용 선호 현상은 더욱 강세였다. 상반기 경력직 채용하는 공고는 전체의 34%로, 이는 신입만 채용한 공고(6.3%)에 비해 5.4배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경력 공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무엇일까.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필두로 새

로운 기술 인재 채용이 활발한 'IT·웹·통신'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화학'(41.2%), '기관/협회'(38.7%), '건설업'(35.2%), '미디어·디자인'(34%), '의료·제약·복지'(29.2%), '판매·유통'(25.9%) 등이었다.

신입 채용공고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디어·디자인'(7.8%)과 '건설업'(7.8%)이었으며, 다음으로 '기관/협회'(7.7%), '판매/유통'(7.4%), '제조/화학'(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민대 'CoREP' 취업률 92.5% 기록 실무역량 극대화에 기업들도 '주목'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 경력개발지원단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CoREP(핵심직무 전문가 양성과정)'이 학생과 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취업 준비를 넘어 원하는 기업 입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민대에 따르면, CoRE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직무를 막론하고 '직무 공모전'에 전부 참여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접촉해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아 현재 재직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해 여름 국민대 CoREP의 유통 영업 팀은 남성복 셔츠 제조·수출업체인 덕양무역의 'Non-Iron 셔츠 내수시장 신규진출'이라는 주제로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제안서는 창의적이면서도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이 팀의 조장인 교육학과 김동혁 학생은 덕양무역 국내영업 담당 신입사원으로 지난 2월 입사했다.

9월부터 진행되는 기업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국민대 CoREP은 기업들로부터

도 주목을 받는다. 기업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가 필요한 때문이다. CoREP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성 및 비즈니스마인드 등 직장인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교육과 마케팅·기획안 작성·기초회계 등 공통 직무역량 교육을 진행한 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하는 100% '실무중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모전에서 제안할 사업 주제 선정부터 그에 따른 기업과 시장환경 분석, 사업기획, 보고서 작성, 발표까지 모든 과정은 100% 학생들이 계획하고 운영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현업 전문가인 멘토들이 배치되어 피드백·중간평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결과로 2016년에는 CoREP 프로그램에 참여한 80명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92.5%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동혁 씨는 "이번 판매를 통한 셔츠 기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 학생들이 교내 경력개발지원단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CoREP(핵심직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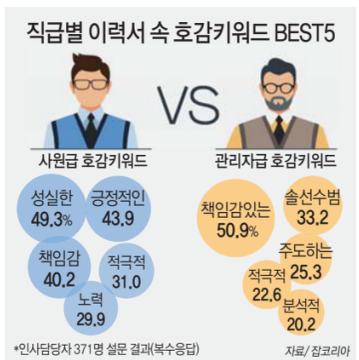
이력서 호감 키워드 사원은 '성실' 관리자는 '책임감'

2위는 '긍정적·솔선수범' 꼽혀
채용서 중요한 항목은 '직무경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직급별로 더 호감을 느끼는 키워드는 따로 있었다. 사원급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성실한'에, 관리자급을 채용할 때는 '책임감 있는'에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8일 최근 인사담당자 371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내 호감키워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사원급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지원서에서 더 호감이 가는 키워드(복수응답)를 꼽게 한 결과 ▲성실한이 총 49.3%의 응답률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긍정적인(43.9%)이, 3위는



▲책임감 있는(40.2%)이 각각 차지했다. 이어 ▲적극적인(31.0%), ▲노력하는(29.9%), ▲꾸준한(15.9%), ▲솔선수범하는(14.8%), ▲신속한(10.8%) 등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호감을 갖게 하는 키워드로 꼽혔다.

관리자급 이력서에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키워드로는 ▲책임감 있는(50.9%)을 1위로 꼽았다. 2위는 ▲솔선수범하는(33.2%)이 차지한 가운데 ▲주도하는(25.3%), ▲적극적인(22.6%)도 중요 키워드로 꼽혔다.

이밖에 ▲분석적인(20.2%) ▲성실한(19.7%) ▲긍정적인(19.1%) ▲배려하는(15.1%) ▲신중함(11.3%) ▲노력하는(11.1%) ▲창의적인(11.1%) 등도 관리급 지원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키워드로 꼽혔다.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지원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항목(복수응답)은 사원급과 관리자급 모두 '직무경험'이었다. 다만 '직무경험을 가장 우선해서 본다'는 응답은 관리자급에서 60.1%로 사원급의 53.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시원스쿨 '왕초보 여행 베트남어' 도서 출간

시원스쿨은 최근 베트남 여행자 증가에 따라 시원스쿨 베트남어 인강 전문 브랜드(시원스쿨 베트남어)가 '시원스쿨 왕초보 여행 베트남어' 도서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 하노이 등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900만 명으로 이 중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56.1% 증가한 200만 명을 기록했다.

책은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행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문장을 알려준다. 특히 사전에 찾듯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가나다 순과 상황별로 제시해 원하는 베트남어를 빠르게 찾도록 한 구성이 특징이다. 원어인 MP3파일과 핵심표현만 담은



베트남어 표현 미니북도 함께 제공된다. 책을 기획한 시원스쿨 베트남어 담당자는 "베트남 여행지 정보는 물론 현지에서 간단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용 문장을 대거 수록했다"며 "베트남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천재교육

AI 수학브랜드 '닥터매스' 티저홈피 오픈

천재교육(회장 최정민) 계열사 해법에듀(대표이사 홍인국)는 지난 1일 인공지능 기반 신규 수학 브랜드 '닥터매스(Dr.Math)' 티저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닥터매스는 천재교육과 해법에듀의 방대한 교육 빅데이터와 국내 에듀테크 기업 클래스큐브의 문제은행 검색엔진이 만난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플랫폼으로, 학생별 취약점 분석 및 학습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문제은행에서 유사 문항 검색 지원하는 문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학습 커리큘럼을 효율적으로 제작·관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식·텍스트 등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도 도입됐다. 교사 중심의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제작된 고도화 지식맵을 활용, 학원·교습소·공부방 등 현장 교사에게 학생 별 취약점에 대한 분석 솔루션 및 맞춤 문제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법에듀는 오는 9월 닥터매스 정식 론칭에 앞서 오는 16일~31일까지 서비스를 가오픈하고 무료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1개월 무료체험 사전 예약을 신청한 선착순 300명에게 닥터매스 학원용 구급함을 선물로 준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한국공항공사

'열린 놀이터' 만들기 맞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일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한국공항공사(김명운 사장직무대행)와 '열린 놀이공간(통합놀이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항 인근 지역 학교에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을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설계하기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 교원, 연구진, 디자이너 등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함께하는 참여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놀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욕구 파악을 위해 놀이관찰과 심층 인터뷰 등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예비지원자 캠퍼스 설명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예비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캠퍼스 생활설명회'를 11일 오후 3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지하 1층 B117호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예를 앞두고 있는 신·편입생 지원자, 예비지원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및 진학, 학사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학과(전공) 교수 소개를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 및 학사관리', '장학금 등 경희가족 혜택' 등이 안내되고, 학과별 예비 지원자들이 담당 교수와의 상담과 학과별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특히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튜디오 체험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t.ly/2Og6EzF>)와 전화로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국민* 모두를 위한 실용교육]

세상을 구하라!

교육의 한계를 깨는 **실용교육**과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정신**으로
국민대가 만들어갑니다



2019학년도 **국민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접수기간 : 2018. 09. 10(월) ~ 09. 12(수) (인터넷 접수)

입학상담 : 입학팀 02)910-4123 ~ 29 / 입학사정관팀 02)910-5703 ~ 20

자세한 사항은 QR Code 또는 admission.kookmin.ac.kr 참조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국산품종 17종 육성... 복숭아 '세대교체' 나선다

농진청, 국산품종 보급률 34%
천도 '천홍'·복숭아 '유명' 등
2026년까지 보급률 40% 목표

최근 국산 품종 '복숭아'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까지 국산 품종 보급률을 지금의 34%에서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맛 좋은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 보급한 결과,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34%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올해까지 털 없는 천도 7품종, 털 있는 복숭아 10품종 총 17품종을 육성했다.

농진청은 "지금까지는 국내 소비 시장



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학기 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이 새로 품종 개발한 복숭아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절반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위에 약해 쉽게 죽는 단점

이 있었다"며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맛 좋은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왔다"고 설명

했다.

털 없는 천도 중 대표 품종은 국내 최초 천도 품종 '천홍'이다. 최근 개발된 천도 품종으로는 '엘로드림' '스위트퀵' '이노센스' '설홍' 등이다. 이들 품종은 모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달콤한 복숭아로 대부분 당도가 14브릭스다.

농진청은 "털 없는 천도 가운데 대표 품종은 국내 최초 천도 품종인 천홍"이라며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과 하순께 수확하고, 색이 붉고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워 국내 천도 가운데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고 소개했다.

털 있는 복숭아 품종은 대한민국 1호 복숭아 품종인 '유명'이 대표적이다. 단단한 품종의 대명사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했다.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좋아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고, 소비자 선호도가 좋은 품종으로 '미홍' '유미' '수미' 등이 있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소비자들과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숭아 품종 개발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 연구는 물론,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달콤함은 살리고 껍질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천도 품종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신학기 농진청 원예작물부장은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연구하겠다"며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달콤함은 살리고, 껍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천도 품종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대학생들에 BIM기업 설명·취업지원 서비스

9~10일 Cost-BIM 취업아카데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폴리텍대학, 단국대학교는 오는 9~10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Cost-BIM 취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Cost-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입체적 표현방식으로 디자인하고 부재별도 정보를 입력해 설계·건축·시공단계에서 활용하는 3D 모델링 기반의 LH BIM 물량산출 기법이다.

건설 환경은 2D 기반에서 3D BIM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LH는 대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

공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취업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

LH는 이틀간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Cost-BIM 소프트웨어 소개 및 실습, BIM업체 기업설명회, 일대일 취업상담 및 현장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학생이 졸업 후 경력 단절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Cost-BIM 확대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줄이고 대학생이 일하면서 배우는 취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도로공사, 시설관리근로자 234명 정규직 전환

자회사 '시설관리(주)' 설립·출범
계약기간 남은 53명은 내년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를 설립하고, 김천 본사에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의 미화,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시설관리부문 근로자 296명 중 243명은 지난 1일부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53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된다.

도로공사는 시설관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2월 신설된 전담부서를



지난 7일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도로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 설립 기념 현판 제막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주축으로, 임금체계 등 자회사 설립 관련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용역업체 소속이던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회사로 통합됨으로

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타 부문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美 LA서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관광공사, 미국인 관광객 유치 일환

정부가 미국인 방한객 유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최대 방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인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서부 유력 미디어와 관광 유관기관 등 오피니언 리더, 여행업계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국을 '맛있는 음식'에 대해 관광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음식 만족도는 95.3%로 방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을 찾은 미국 관광객은 북미갈등으로 인해 87만명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47만명이 방한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LA 시내 알렉산드리아 행사장에서 현지 관광미디어, 여행업계, 마이스(MICE) 기획자 등 60여명을 초청해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행사로 미쉐린 가이드북 선정 2스타 한식당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등 구미주 여행업계 초청 한국관광 트래블마트에서 바이어들이 상담하는 모습. /한국관광공사

'권속수'의 권우중 셰프를 초청해 '30년 된 씨간장을 뿌린 국산 캐비어 전복찜'과 '400년 전통비법을 담은 무만두' 등 고급 한식요리를 시연하고, 미식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홍보한다.

이어 11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트와이스 등 한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한류 페스티벌인 'KCON LA 2018' 개막에 앞서, 사전 행사로 국가원의 태권도 시범 행사를 선보인다. 또한 공사 지원으로 제작된 미국 CBS 프로그램 '로 트래블(Raw Travel) 한국편' 제작 프로듀서를 연사로 초청해 DMZ투어, 경복궁 한복체험, 홍대 버스킹 공연 등 한국여행체험단을 소개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총 8명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일당의 70%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와 B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애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aT,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5기 발대

브라질·폴란드 등 9개국 파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아프로)'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3기, 4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파견되는 5기는 브라질, 폴란드, 대만, 말레이시아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9개국으로 파견되어 해외 시장개척을 선도하고자 선정된 '2018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업체'의 현지 주재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1~4기 단원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열정' 사진으로 수출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아프로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우수 단원 김영근씨(3기, 남아공 파견)와 박건호씨(3기, 대만 파견)의 멘토링을 통해 파견을 앞둔 신규 단원들에게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멘토로 참여한 김영근 단원은 "처음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 설레임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파견된 단원들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팀워크를 통해 극복했다"며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이병호 aT 사장이(오른쪽) 6일 열린 아프로 5기 발대식에서 단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T

있었고, 저 또한 매칭된 업체에 취업되어 다시 남아공으로 떠나는 기회를 얻었다"라며 열정적인 팀워크를 만들라고 후배들에게 선배다운 조언을 남겼다.

한편, 발대식 이후 파견을 앞둔 35명의 신규 단원들은 일주일간 aT 유통교육원에서 기본적인 수출역량 교육을 받게 된다. aT 유통교육원에서 개발한 본 교육과정은 농식품 수출현황과 정책, 수출절차와 무역 실무 및 글로벌 마케팅 등의 기본 교육을 통해 농식품 무역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다지며, 파견국에 대한 이해, 글로벌 에티켓이나 안전 등을 교육받아 원활한 현지 적응을 돕도록 구성돼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 SK텔레콤 10대 저격 브랜드 '0' 론칭 05



Life

[라이프] 롯데백 건대점 VR테마파크 '몬스터VR' 오픈 11



서울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지하철 타고 명동 쇼핑 즐겨

올해 상반기 서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이용 숙박시설 (복수응답)		
호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68.9%	8.6%	5.5%
주 이용 교통수단 (1순위)		
지하철	택시	버스
59.1%	27.2%	9.3%
주요 방문지 (복수응답)		
명동	롯데백화점	N서울타워
83.8%	48.9%	45.3%
주요 참여활동 (복수응답)		
쇼핑	식도락	역사탐방
92.1%	78.9%	41.8%
주요 쇼핑 장소 (복수응답)		
시내면세점	전통시장	백화점
57.0%	50.5%	49.8%
식사 시 고려사항		
음식 맛	적절한가격	메뉴 다양성
59.1%	27.2%	9.3%

자료/서울시

서울 방문해 평균 5.66일 머물러 주로 화장품·의류·식품 쇼핑

올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대개 명동을 방문해 쇼핑과 식도락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외국인 관광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상반기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여가·오락·휴가'(55.3%)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해 평균 5.66일 머물렀다. 명동(83.8%)을 가장 많이 방문했고, 쇼핑(92.1%)과 식도락(78.9%)을 즐겼다.

주 쇼핑 장소는 시내면세점이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통시장 방문율은 전년 동기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50.5%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화장품(68.1%), 의류(55.1%), 식품(39.0%)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도락 관광부문에서는 대부분 한식(94.3%)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음식(64.5%)과 카페·커피전문점(49.6%)도 선호했다. 음식점 선택 기준은 맛이 83.5%로 가장 높았고, 가격(39.5%), 메뉴 다양성(28%)도 중요 요소로 꼽혔다.

관광 정보는 모바일 인터넷(57.9%)을 통해 얻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등 소셜미디어(36.5%) 활용도 높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호텔(68.9%)과 게스트하우스(8.6%)에 머물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59.1%), 택시(27.2%) 순이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선불교통카드를 구입해 평균 3만2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 편의성 개선을 통해 서울을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절 기념음악회. /서울시

'한반도 평화 염원' 광복 73주년 기념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광장서 공연 개최해왔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5일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서울시향 광복 73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음악회는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즐길 수 있다. 5000석 전석 무료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광복회 회원은 특별 손님으로 초청된다.

서울시향은 광복절을 경축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광복절 기념음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음악회 주제는 '한반도 평화'이다.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편곡한 '아리랑 환상곡',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팬텀싱어2 우승팀인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그룹 '포레스텔라',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협연도 만나볼 수 있다.

음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광장, 모래사장 펼쳐진 휴양지로 '변신'

서울시 3색 '문화로 바캉스'

서울광장 인공해변 음악콘서트 청계광장 패션쇼·라이브페인팅 광화문광장 트리·눈 조각 전시

서울광장이 모래사장 해변이 펼쳐진 휴양지로 변신한다. 실제 바닷가에서 공수해온 15t의 모래벌판 위에는 아자수와 파라솔이 세워지고, 잔디광장에는 텐트와 빈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오는 10~11일 서울 도심 3개 광장(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서 3색(色) '2018 서울 문화로 바캉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미니 인공해변이 조성된 서울광장에서는 영화음악콘서트인 '서울씨네뮤직'과 영화를 본 후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서울시

'모기장 영화제'가 열린다. 행사 첫날에는 인디를 테마로 밴드 공연과 독립영화 상영이 진행된다. 둘째 날 테마는 클래식으로 클래식·재즈 공연과 멜로영화로 즐길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는 10일 패션쇼, 그라피티 라이브 페인팅, DJ·비보이 공연 등을 볼 수 있다. 11일에 열리는 거리시각예술

축제에는 일러스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60명이 현장 경연에 참여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11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눈 조각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6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다. 행사 당일 12팀에는 눈 조각 작품을 직접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 /김현정 기자

6·25전쟁 이후 서울 모습 담은 연구서 발간

서울역사편찬원, 1950년대 서울 수록

6·25 전쟁 이후 수도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

서울역사편찬원은 6·25전쟁이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별로 조명한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서에는 ▲전쟁 기간 북한의 서울시 점령정책 ▲환도 논의 및 시도가 지닌 정치적 의미 ▲전후 도로·교량의 재건과 시민의 역할 ▲미아리 난민정착사업의 전개 ▲구호물자 도입에 따른 서울사람들의 식생활 변화 ▲전쟁고아와 부랑아의 발생과 정부 대책 ▲용산 미군기지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 등을 다룬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책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1954년부터 도로 복구와 보수에 나섰다. 도로 건설에 원조자금을 배정하고, 보수자재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서울에 아스팔트 공장을 세웠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환도(정부와 수도



한강대교 복구 준공식. /서울역사편찬원

의 복상)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승만 정부의 환도설로 인해 주택값과 물가가 폭등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

시와 미국 원조기구는 시민 구호와 정착, 주택난 해소와 자활을 표방하며 난민 정착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사업장 부지 제공·관리와 관련해 비리가 만연했고, 정착지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철거가 이뤄져 또 다른 난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은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한강서 종이배 레이스를... '한강몽땅 경주대회' 연다

오는 10~12일 잠실한강공원서 열려 무더운 여름, 직접 만든 종이배로 한강을 건너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0~12일 잠실한강공원 잠실나들목 인근 둔치에서 '2018 한강몽땅 종이배 경주대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경기는 골판지로 직접 배를 만든 후 한강에 설치된 반환점을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 경기 25팀이 출전해 회차별 1

등을 선정, 전체 기록을 측정해 시상한다.

종이배 경주대회 참가 신청은 9일까지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400팀을 모집한다. 현장 접수는 온라인 티켓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회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일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야 참여할 수 있다.

대회 당일 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거나 팔당댐 방류량이 1500m³/sec 이상이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시는 구조



한강몽땅 종이배 경주대회 참가자 모습. /서울시

선 3대와 인명구조요원 9명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돈의문전시관서 '골목길 동네인문학 강좌'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돈의문전시관에서 '골목길 동네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강좌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총 4회 열린다. 돈의문전시관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이는 교육의 첫 번째 주제는 '아지오와 한정, 돈의문전시관이 되다'이다.

수업은 전시관 기획과 조성에 참여한 역사·도시사·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듣는 특별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돈의문전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SAMSUNG

유레없이 찾아온
 초열대야 속에서도
 초절전 무풍냉방으로
 전기요금 걱정없이
 밤새도록 시원하게



초절전 무풍냉방으로
 하루종일 시원하게
삼성 무풍에어컨



무풍 지능냉방

실내 환경을 감지하고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 24시간 똑똑하게 맞춤 냉방 제공



초절전 무풍냉방

초절전 바람문 컨트롤에 무풍까지 더해져 최대 90%까지 전기사용률 절감



무풍 열대야래면

수면 사이클에 맞춰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에 무풍까지 더해져 쾌적함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합니다. 전기 사용률의 경우 자사 실험치 기준이며, 실제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체 용량인식은 최대 5m이며 소비자 가이드 적정 동작기준 정면 3m 이내입니다. 빅스비 음성인식 지원은 와이파이 지원 환경에서 가능하며, 실시간 환경에 따라 성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모델에 한함